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2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마명 『대승기신론』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2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마명 『대승기신론』

서 정 형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을 수행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2004.9-2006.8)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펴고 있다. 그 첫 번째 성과물을 이제 『철학사상』 별책 제5권으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써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

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1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장 /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 중 현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2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마명 『대승기신론』

서 정 형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머 리 말

불교의 가르침은 바다에 비유될 만치 방대하여 대장경해(大藏經海)라 불린다. 그 가운데 교조인 붓다의 직접적인 교설과 그것에 대한 주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위 소승불교의 영역으로서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위 대승불교의 영역으로 붓다의 사상을 계승한다고 자처한 사상가들에 의해 씌어지고 해석되고 편집된 것들이다. 그 때문에 근래 대승불교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붓다의 초기 교설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오의(奧義)가 남김없이 전개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대승불교의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는 불성[혹은 여래장]에 대한 탐구이다. 이것은 실체론적 사유관행이 투영된 것으로 의심받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불교철학이 더욱 깊고 풍요로운 내용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불성에 대한 천착은 동시에 마음과 마음의 본성에 대한 물음이기도 한데, 『대승기신론』은 총체성으로서의 마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논서이다. 총체성이라 함은 마음이란 개념을 심리현상에 한정시키지 않고 사물의 본성[法性]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한다는 의미이다. 일심(一心)이란 총체성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나날이 마음을 쓰고 살면서도 마음에 대해 어둡다. 순간순간 생멸하는 마음[生滅心]에 미혹하고, 만유의 본체로서의 마음[眞如心]은 가려져 있다.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한마음[一心]의 양면으로서 둘이 되 둘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인 것도 아닌 이치를 보지도 못한다. 그러

니 이 마음에 갖춰진 한량없는 공덕과 불가사의한 덕성을 깨닫지 못하고, 번뇌를 마음으로 알아 그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중생살이이다. 『대승기신론』은 바로 이 마음[大乘]에 대한 믿음[信]을 불러일으키는 [起] 논설[論]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교조적인 신앙이 아닌 ‘바른 이치에 대한 확인’이다.

『대승기신론』은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논리전개가 치밀할 뿐 아니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이한 저술이다. 산스크리트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고, 저자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동아시아불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불교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저술이어서 고대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지만, 특히 한국불교에서는 원효와 그의 저술인 『대승기신론소』의 성가로 인해 지나치다고 할 만큼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필자가 본 연구에서 『대승기신론』을 선정한 것은 우선 텍스트의 철학적, 불교사적 중요성 때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연구 업적이 쌓인 만큼 차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본 연구의 취지나 방법론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대승기신론』은 바닥없는 심연과 같은 텍스트였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능력만큼만 자신을 드러낸다. 이 저술이 그동안 많은 연구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도 거기에 있을지 모르겠다. 알게 보았건 깊게 보았건 본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와 같이 필자 또한 보았으되 얼마나 보았는지 자신할 수가 없다. 더구나 여러 제약 때문에 본 것조차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부끄럽지만 소책자를 지난해 타계하신 고 심재룡 선생님 영전에 바친다. 필자는 연구기간 내내 선생님의 힘든 투병을 곁에서 지켜봐야했다. 선생님의 원력이 부디 일심의 근원에 사무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연

구책임자이신 백종현 선생님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2005년 4월

서 정 형

목 차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1. 마명의 생애 및 저작	1
1.1 생애 요약	1
1.2 생애 연보	2
1.3 주요 저작	2
1.3.1 『대승기신론』	2
2. 『대승기신론』 해제	2
2.1 『대승기신론』 요약	2
2.2 『대승기신론』 해설	2
2.3 『대승기신론』 상제 목차	4
2.4 주요 용어	7
2.4.1 일심	7
2.4.2 진여	8
2.4.3 각	8
2.4.4 훈습	9
2.4.5 지관	9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11
1. 철학자 지식지도	11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12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12

3.1 일심	12
3.2 진여	13
3.3 각(覺)	14
3.4 혼습	15
3.5 지관(止觀)	15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16
 제 3 부 『대승기신론』 내용 분석 연구	25
1. 일심(一心)	25
1.1 일심의 의미	25
1.1.1 대승	25
1.1.1.1 대승의 뜻	25
1.1.1.1.1 대(大)	25
1.1.1.1.2 승(乘)	26
1.1.2 법 [대승의 법]	26
1.2 일심의 양면[一心二門]	27
1.2.1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관계	28
2. 진여[=심진여]	28
2.1 진여의 의미	28
2.2 제법(諸法)의 본체	29
2.3 이언(離言)진여	30
2.3.1 무상(無相)	30
2.3.2 부사의경계(不思議境界)	31
2.3.3 수순(隨順)과 득입(得入)	31
2.4 의언(依言)진여	32
2.4.1 공(空)	33
2.4.2 불공(不空)	34

3. 심생멸	34
3.1 심생멸의 의미	34
3.2 심생멸의 양면	35
3.3 심생멸의 인연	36
3.3.1 의(意)의 전변[意轉]	36
3.3.1.1 의(意)의 의미	36
3.3.1.2 의(意)의 다섯 가지 전변	37
3.3.1.2.1 업식(業識)	37
3.3.1.2.2 전식(轉識)	37
3.3.1.2.3 현식(現識)	37
3.3.1.2.4 지식(智識)	38
3.3.1.2.5 상속식(相續識)	38
3.3.2 의식의 전변[意識轉]	38
3.3.2.1 의식의 의미	38
3.3.3 삼계유심(三界唯心)	39
3.3.4 생멸인연[心意識]의 불가사의	40
3.3.5 [무명]염심(染心)	41
3.3.5.1 [무명]염심의 의미	41
3.3.5.2 [무명]염심의 여섯 가지 반연(攀緣)	41
3.3.5.2.1 집상응염(執相應染)	41
3.3.5.2.2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	42
3.3.5.2.3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	42
3.3.5.2.4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	43
3.3.5.2.5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	43
3.3.5.2.6 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	43
3.3.5.3 무명[염심]의 치단(治斷)	44
3.3.5.4 상응(相應)과 불상응(不相應)의 뜻	44
3.4 [심]생멸상	45
3.4.1 생멸상의 분별	45

3.4.2 생멸상의 인(因)과 연(緣)	45
3.5 생멸문의 진여 자체(自體)·상(相)·용(用)	46
3.5.1 상대(相大)	46
3.5.2 용대(用大)	48
3.5.2.1 응신(應身)	48
3.5.2.2 보신(報身)	49
3.5.2.3 응신과 보신의 구분	49
3.5.2.4 진여대용(眞如代用)	49
3.6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50
4. 각(覺)	51
4.1 각의 의미	51
4.1.1 이념(離念)	51
4.1.2 법계일상(法界一相)	51
4.1.3 법신(法身)	52
4.1.4 본각(本覺)·시각(始覺)·불각(不覺)	52
4.2 본각(本覺)	53
4.2.1 본각의 양면 : 성정(性淨)본각과 수염(隨染)본각	53
4.2.2 성정(性淨)본각 : 환멸문(還滅門)	53
4.2.2.1 성정본각의 사체상(四體相)	53
4.2.2.1.1 여실공경(如實空鏡)	53
4.2.2.1.2 인훈습경(因薰習鏡)	54
4.2.2.1.3 법출리경(法出離鏡)	55
4.2.2.1.4 연훈습경(緣薰習鏡)	55
4.2.3 수염(隨染)본각 : 유전문(流轉門)	55
4.2.3.1 수염본각의 두 모습[二相]	55
4.2.3.1.1 지정상(智淨相)	56
4.2.3.1.2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	57
4.3 시각의 사상(四相)	57

4.3.1 범부각(凡夫覺)	58
4.3.2 상사각(相似覺)	58
4.3.3 수분각(隨分覺)	59
4.3.4 구경각(究竟覺)	59
4.4 무념(無念)	60
5. 불각[=무명]	61
5.1 근본불각	61
5.2 지말불각	62
5.2.1 삼세(三細)	62
5.2.1.1 무명업상(無明業相)	62
5.2.1.2 능견상(能見相)	63
5.2.1.3 경계상(境界相)	63
5.2.2 육추(六麤)	64
5.2.2.1 지상(智相)	64
5.2.2.2 상속상(持續相)	64
5.2.2.3 집취상(執取相)	65
5.2.2.4 계명자상(計名字相) [=假名言相]	65
5.2.2.5 기업상(起業相)	65
5.2.2.6 업계고상(業繫苦相)	65
5.3 각과 불각의 관계	66
5.3.1 동상(同相)	66
5.3.2 이상(異相)	67
6. 훈습(薰習)	67
6.1 훈습의 의미 [염정(染淨)훈습]	67
6.2 훈습의 네 요건	68
6.3 염(染)훈습	68
6.3.1 염훈습의 구조	68
6.3.2 무명(無明)훈습	69

6.3.2.1 근본(根本)훈습	69
6.3.2.2 소기견애(所起見愛)훈습	69
6.3.3 망심(妄心)훈습	70
6.3.3.1 업식근본(業識根本)훈습	70
6.3.3.2 증장분별사식(增長分別事識)훈습	70
6.3.4 망경계(妄境界)훈습	71
6.3.4.1 증장념(增長念)훈습	71
6.3.4.2 증장취(增長取)훈습	71
6.4 정(淨)훈습	71
6.4.1 정훈습의 구조	71
6.4.2 진여(眞如)훈습	72
6.4.2.1 자체상(自體相)훈습	72
6.4.2.2 용(用)훈습	74
6.4.2.2.1 용훈습의 의미	74
6.4.2.2.2 차별연(差別緣)	74
6.4.2.2.2.1 차별연의 의미	74
6.4.2.2.2.2 차별연의 종류	75
6.4.2.2.3 평등연(平等緣)	75
6.4.2.3 체용(體用)훈습	76
6.4.2.3.1 미상응(未相應)	76
6.4.2.3.2 이상응(已相應)	76
6.4.3 망심(妄心)훈습	77
6.4.3.1 분별사식(分別事識)훈습	77
6.4.3.2 의(意)훈습	77
6.5 정훈습과 염훈습의 차별	78
7. 지혜	78
7.1 사건의 대처	78
7.1.1 인아견(人我見)	79

7.1.1.1	집공위성(執空爲性)	79
7.1.1.2	집법위공(執法爲空)	80
7.1.1.3	집성위색(執性爲色)	80
7.1.1.4	집성유염(執性有染)	80
7.1.1.5	집시종유염(執始終有染)	81
7.1.2	법아견(法我見)	82
7.2	궁극적 지혜	82
8.	수행 :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	83
8.1	발심	83
8.1.1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83
8.1.1.1	신성취발심의 인연	83
8.1.1.2	신성취발심의 종류	84
8.1.1.2.1	직심(直心)	84
8.1.1.2.2	심심(深心)	85
8.1.1.2.3	대비심(大悲心)	85
8.1.1.3	선법(善法)수행의 방편	85
8.1.1.3.1	행근본(行根本)방편	85
8.1.1.3.2	능지(能止)방편	86
8.1.1.3.3	발기선근증장(發起善根增長)방편	86
8.1.1.3.4	대원평등(大願平等)방편	87
8.1.1.4	신성취발심의 공덕	87
8.1.2	해행발심(解行發心)	88
8.1.3	증발심(證發心)	89
8.1.3.1	증발심의 의미	89
8.1.3.2	증발심의 양상[相]	89
8.1.3.3	증발심의 공덕	90
8.2	신심의 수행	91
8.2.1	사신(四信)	91

8.2.2 오행(五行)	92
8.2.2.1 보시(布施)	92
8.2.2.2 지계(持戒)	93
8.2.2.3 인욕(忍辱)	93
8.2.2.4 정진(精進)	93
8.2.2.5 지관(止觀)	94
8.2.2.5.1 지관의 의미	94
8.2.2.5.2 지(止)	94
8.2.2.5.2.1 지를 닦는 방법	94
8.2.2.5.2.2 진여삼매	95
8.2.2.5.2.3 삼매 수행의 이익	96
8.2.2.5.3 관(觀)	97
8.2.2.5.3.1 관을 닦는 까닭	97
8.2.2.5.3.2 관을 닦는 방법	97
8.2.2.5.3.2.1 무상관(無常觀)	97
8.2.2.5.3.2.2 대비관(大悲觀)	98
8.2.2.5.3.2.3 서원관(誓願觀)	98
8.2.2.5.3.2.4 정진관(精進觀)	98
8.2.2.5.4 지관의 겸수(兼修)	98
8.2.3 염불	99
8.3 수행의 장애	100
8.3.1 마장(魔障)	100
8.3.2 마장의 대처	101
8.4 수행의 권장	101
참고문헌	103

일 러 두 기

1. 표준번역본은 은정희의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로 정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기존의 번역을 소개하고 번역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전에 미처 상고하지 못한 전거를 밝혀 전후 문맥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문어의 노출과 독자적 번역으로 인한 경직성과 부자연스러움인데 심한 경우 극히 일부분 필자가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원문에 대한 해석에서 애매한 부분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별기』를 참조하였고 약어를 병기하였다. 약어 뒤의 숫자는 은정희의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쪽수이다.
3. 해설에서 인용된 문헌의 약어는 다음과 같다.
 - ※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AMFC (Commentary on the Treatise of Awakening Mahayana Faith)
 - ※ 원효의 『대승기신론별기』: AMFA (Appendix on the Treatise of Awakening Mahayana Faith)
4. 전산화의 난점으로 인해 산스크리트어를 로마자화할 때 상용되는 특수문자를 쓰지 못했다.
5. 이 책의 장, 절 표시는 그 내용의 위계에 따라 예를 들어 1. 일심(一心), 1.1 일심의 의미, 1.1.1 대승 순으로 표시하였다.

6. 3부 각 단락의 맨 앞에 있는 ‘(q1.1)’ 또는 ‘(e1.2)’ 등은 철학 지식지도의 웹 구현을 위한 표시일 뿐,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책을 읽을 때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q’는 인용을 의미하고, ‘e’는 해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 ‘(q1.1)’은 제 1장의 첫 단락을 그리고 ‘(e1.2)’는 제 1장의 두 번째 단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q’와 ‘e’를 통해서 첫 단락은 인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해설임을 알 수 있다.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마명의 생애 및 저작

1.1 생애 요약

『대승기신론』은 동북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들어 위찬(僞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저자에 관한 서술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하나는 저자를 확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느 쪽으로든 확정을 하더라도 의존할만한 기록이 적어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알려져 온 것과는 달리 『대승기신론』이 인도의 마명(馬鳴, Asvaghosa)보살이 아닌, 중국에서 활동한 인도의 역경승이나 중국인에 의해 처음부터 중국어로 씌어진 저술이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저자를 1-2세기 경 중부 인도에서 활동한 마명보살로 잠정 확정하고자 한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코살라(kosala) 혹은 마가다(magada)국 태생으로서 정통바라문 출신이었으나 불교 승려인 부나야사(富那夜奢, Punyayasas), 혹은 협존자(脇尊者, Parsva)와의 대론에서 패배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후에 카니시카왕에 의해 간다라에 가서 그의 위호 아래 불법을 크게 선양하였다. 또 다른 저술로 석가모니의 행적을 기술한 『불소행찬』(佛所行讚)이 전한다.

1.2 생애 연보

출생 연도 : 1-2세기 (중부 인도에서 활동)

1.3 주요 저작

1.3.1 『대승기신론』

2. 『대승기신론』 해제

2.1 『대승기신론』 요약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 전통 가운데에서 가장 철학적인 저술에 속한다. 특히 대승불교에서의 믿음의 의미를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다룬 논서이다. 경전이 아니고 논서이기에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대승기신론』에 따르면 모든 대승 경론들을 뚫어 꿰는 하나의 원리는 일심(一心)이다.

일심[한마음]이라 할 때의 ‘일’ (一)은 오직 하나이며, 가장 크고 평등한 것이며, 동시에 전체라는 뜻이다. 이런 마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일적 원리라는 일견 유심론적 세계관이 이 논서의 주제이다. 또한 그 마음이 대승불교의 믿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자 믿음의 뿌리임을 밝히고 있다.

2.2 『대승기신론』 해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라는 제명을 풀면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Treatise on Awakenging Faith in Mahayana) 혹은,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Treatise on Awakening Mahayana Faith)가 된다. 어느 쪽이든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여기서 대승이란 곧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니 제명이 가리키는 두 주제는 믿음[信]과 마음[心]이다.

믿음은 한자말로 흔히 신심(信心)이라고 말하므로 기신론은 믿음에 관한 저술이다. 물론 믿음에는 불가해한 대상에 대한 불합리하고 맹목적인 믿음도 있고, 편견 없이 이치를 쫓아 확신에 이르는 이성적인 믿음도 있다. 『대승기신론』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인 대승[곧 마음]은 실로 불가사의한 것이지만 그 구조와 조건과 공능을 밝혀 참된 이해와 각성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믿음과는 구별된다.

“내가 곧 부처이다”라는 대승 불교의 대담한 주장을 접할 때 우리는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의심부터 품기 마련이다. 이렇게 탐욕스럽고, 화 잘 내고, 어리석은 중생이 어찌 감히 부처님을 참칭하겠는가? 마음 한번 단박 깨치면 부처요 미혹되면 중생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닦지도 않은 더러운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깨끗한 거울에 비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의심해 오는 보통 사람들 -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번뇌와 무명에 덮여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못하는 중생들 - 의 의심을 풀어주는 법문이 필요할 터이다.

마음에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깨끗한 마음도 마음이요, 더러운 마음이다. 두 가지 마음이라 하지만, 그 근원이 다르지 않을 터인 즉 결국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면 중생과 부처는 한 마음의 두 모습이지 않을까? 그 마음이 본래 하나라면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잘못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고치는가?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 보는 책이 바로 『대승기신론』이다.

대승불교의 모든 교리가 어느 하나의 원리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대승기신론』은 6세기 이래 동아시아 불교계에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불교계만이 아니라 『대승기신론』이 최근 수 세기 동안 한국 및 동북아시아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던 신유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술은 대승불교를 하나의 그릇에 담아놓은 불교 사상의 한 종합이

자, 신유학을 비롯한 다른 사상에 자양분을 공급한 큰 물줄기라고 하겠다.

2.3 『대승기신론』 상세 목차

서문

*귀경계(歸敬偈)

1 인연분(因緣分)

1.1 이 논 의 구성

1.2 논을 지은 까닭

정중분

2. 입의분(立義分)

2.1 대승의 법

2.2 대승의 의(義)

3. 해석분(解釋分)

3.1 현시정의(顯示正義)

3.1.1 진여문

3.1.2 생멸문

3.1.2.1 각(覺)

3.1.2.1.1 본각(本覺)

3.1.2.1.1.1 성정(性淨)본각

3.1.2.1.1.2 수염(隨染)본각

3.1.2.1.1.2.1 지정상(智淨相)

3.1.2.1.1.2.2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

3.1.2.1.2 시각(始覺)

3.1.2.1.2.1 구경각

3.1.2.1.2.2 비구경각

3.1.2.1.2.2.1 범부각(凡夫覺)

- 3.1.2.1.2.2.2 상사각(相似覺)
- 3.1.2.1.2.2.3 수분각(隨分覺)
- 3.1.2.2 불각(不覺)
 - 3.1.2.2.1 근본불각[=無明]
 - 3.1.2.2.2 지말불각
 - 3.1.2.2.2.1 삼세(三細)
 - 3.1.2.2.2.1.1 무명업상(無明業相)
 - 3.1.2.2.2.1.2 능견상(能見相)
 - 3.1.2.2.2.1.3 경계상(境界相)
 - 3.1.2.2.2.2 육추(六麤)
 - 3.1.2.2.2.2.1 지상(智相)
 - 3.1.2.2.2.2.2 상속상(持續相)
 - 3.1.2.2.2.2.3 집취상(執取相)
 - 3.1.2.2.2.2.4 계명자상(計名字相) [=假名言相]
 - 3.1.2.2.2.2.5 기업상(起業相)
 - 3.1.2.2.2.2.6 업계고상(業繫苦相)
- 3.1.2.3 생멸 인연
 - 3.1.2.3.1 의전(意轉)
 - 3.1.2.3.2 의식전(意識轉)
 - 3.1.2.3.3 염심(染心)
- 3.1.2.4 생멸상
- 3.1.2.5 훈습
 - 3.1.2.5.1 염훈습
 - 3.1.2.5.1.1 망경계훈습
 - 3.1.2.5.1.1.1 증장념훈습
 - 3.1.2.5.1.1.2 증장취훈습
 - 3.1.2.5.1.2 망심훈습
 - 3.1.2.5.1.2.1 업식근본훈습
 - 3.1.2.5.1.2.2 증장분별사식훈습

- 3.1.2.5.1.3 무명훈습
 - 3.1.2.5.1.3.1 근본훈습
 - 3.1.2.5.1.3.2 소기견애훈습
- 3.1.2.5.2 정훈습
 - 3.1.2.5.2.1 망심훈습
 - 3.1.2.5.2.1.1 분별사식훈습
 - 3.1.2.5.2.1.2 의훈습
 - 3.1.2.5.2.2 진여훈습
 - 3.1.2.5.2.2.1 자체상훈습
 - 3.1.2.5.2.2.2 용훈습
 - 3.1.2.5.2.2.2.1 차별연
 - 3.1.2.5.2.2.2.1.1 근연
 - 3.1.2.5.2.2.2.1.2 원연
 - 3.1.2.5.2.2.2.2 평등연
- 3.2 대치사집(對治邪執)
 - 3.2.1 인아견
 - 3.2.2 법아견
- 3.3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
 - 3.3.1 신성취발심
 - 3.3.2 해행발심
 - 3.3.3 증발심

4.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 4.1 사신(四信)
- 4.2 오행(五行)
 - 4.2.1 보시(布施)
 - 4.2.2 지계(持戒)
 - 4.2.3 인욕(忍辱)
 - 4.2.4 정진(精進)

- 4.3 수지(修止)
- 4.4 마사(魔事)
- 4.5 수관(修觀)
 - 4.5.1 무상관(無常觀)
 - 4.5.2 대비관(大悲觀)
 - 4.5.3 대원관(大願觀)
- 4.6 다른 방편 [염불]

5.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

- 5.1 수행의 이익
- 5.2 비방의 죄

유통분
*회향계

2.4 주요 용어

2.4.1 일심

『대승기신론소』에서, “염정(染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이 둘이 없어, 진망(眞妄)의 이문(二門)이 다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一)’ 이라 이름하며, 이 둘이 없는 곳이 모든 법 중의 실체인지라 허공과 같지 아니하여 본성이 스스로 신해(神解)하기 때문에 ‘심(心)’ 이라고 이름” 한다고 하였다. 다시 이어서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일(一)이 될 수 있는가? ‘일(一)’ 도 있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심(心)’ 이라 말하는가?”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이러한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것이니 무엇이라고 지목할지를 모르겠으나, 억지로 이름 붙여 일심(一心)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2.4.2 진여

진여(眞如, tathata)란 사물이 망념[虛妄分別識]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킨다. 불교는 그것을 떠나 달리 초월적 진리를 세우지 않으므로 궁극적 진리라는 의미도 갖는다. 제법이 다 참되다는 것은 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되다는 것이 아니라, 무명번뇌에 의한 망분별(妄分別)만 떠나면 산하대지가 다 그대로 진리의 드러남이라는 의미에서 참되다는 것이며, 일체 제법이 다 같다는 것은 차별상으로 드러나되 그 성품은 본래 평등함을 말하는 것이다.

2.4.3 각

본각(本覺)의 뜻이란 시각(始覺)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시각이란 바로 본각과 같기 때문이며, 시각의 뜻은 본각에 의하기 때문에 불각(不覺)이 있으며 불각에 의하므로 시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시각이란 심체가 무명의 연(緣)을 따라 움직여 망념[不覺]을 일으키지만, 본각의 훈습의 힘에 의하여 차츰 각의 작용이 있으며 구경(究竟)에 이르러 다시 본각과 같아지는 것이니, 이를 시각이라 한다.

시각과 본각은 상의상대(相依相對)하면서 서로를 성립시킨다. 이미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면 둘 다 자성(自性)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의존해서 성립함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각(覺)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覺)이라고는 하지만 자성으로서의 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불각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근본불각(根本不覺)과 지말불각(枝末不覺)이다. 전자는 알라야식 내의 근본무명을 불각이라 이름하는 것이며, 후자는 무명에서 일어난 일체의 염법(染法)을 모두 불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2.4.4 훈습

훈습의 뜻이란 세간의 의복이 실제로는 향기가 없지만 만약 사람이 향으로 훈습하면 그 때문에 곧 향기가 있는 것과 같이, 진여정법에는 실로 염(染)이 없건만 다만 무명으로 훈습하기 때문에 곧 염상(染相)이 있으며, 무명염법에는 실로 정업(淨業)이 없으나 다만 진여로 훈습하기 때문에 정용(淨用)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훈습하여 염법을 일으켜 단절되지 않는가? 이른바 진여법에 의하기 때문에 무명이 있고, 무명염법의 인(因)이 있기 때문에 곧 진여를 훈습하며, 훈습하기 때문에 곧 망심이 있게 된다. 망심이 있어서 곧 무명을 훈습하여 진여법을 요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각하여 망념이 일어나 망경계를 나타낸다. 망경계의 염법의 연(緣)이 있기 때문에 곧 망심을 훈습하여 그로 하여금 염착(染着)케 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지어서 일체의 신심(身心) 등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2.4.5 지관

가거나 머물거나 눕거나 일어나거나 어느 때든지 모두 지관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니, 소위 비록 모든 법의 자성이 나지 않음을 생각하나, 또한 곧 인연으로 화합한 선악의 업과 고락 등의 과보가 빠뜨려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음을 생각하며, 비록 인연의 선악의 업보를 생각하나 또한 곧 본성은 얻을 수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지(止)를 닦으면 범부가 세간에 주착(住着)함을 대치하고 이승(二乘)의 겁약한 소견을 버릴 수 있으며, 만일 관(觀)을 닦으면 이승이 대비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협렬심(狹劣心)의 허물을 대치하고, 범부가 선근을 닦지 않음을 멀리 여윈다. 이러한 뜻에 의하므로 이 지(止)·관(觀) 이문(二門)은 함께 같이 조성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만

약 지·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곧 보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이다.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 아쉬바고사
- 토픽 ID : ashvaghosa
- 상위 토픽명 : 인도철학자
- 상위 토픽 ID : in_philosopher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 Asvaghosa

영어 이름 : Asvaghosa

생애 요약 : 1부 1.1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 1부 1.1

생애 해설 : 1부 1.2

생애 연보 : 1부 1.3

연관 관계

기여한 철학 분야 : 불교철학 (in_buddhism)

기여한 철학 학파 : 유식 (in_yogacara_school), 중관
(in_madhyamika_school)

기여한 철학 이론 : 불성론 (in_bulseong), 수행론 (in_suhaeng),
삼신론 (in_samsin)

주요 저작 : 대승기신론 (in_asvaghosa_gisinnon)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 대승기신론
- 토픽 ID : in_asvaghosa_gisinnon
- 상위 토픽명 : 인도철학문헌
- 상위 토픽 ID : in_phil_text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 대승기신론

영어 제목 : Awakening of Faith in Mahayana

원전 요약 : 1부 2.1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 1부 2.1

원전 해설 : 1부 2.2

상세 목차 : 1부 2.3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

http://cafe.naver.com/jungjin3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29

철학 문헌 내용 토픽맵 : in_asvaghosa_gisinnon_km.xtm

연관 관계

저자 : 아쉬바고사 (in_asvaghosa)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1 일심

- 토픽명 : 일심 (대승기신론)

- 토픽 ID : t1
- 상위 토픽명 : 일심
- 상위 토픽 ID : t_in_onemind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eka citta

영어 용어 : one mind

한자 표기 : 一心

용어 설명 : 1부 2.4.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아쉬바고사 (in_asvaghosa)

사용한 철학 문헌 : 대승기신론 (in_asvaghosa_gisinnon)

사용한 내용 토픽 :

3.2 진여

- 토픽명 : 진여 (대승기신론)
- 토픽 ID : t2
- 상위 토픽명 : 진여
- 상위 토픽 ID : t_in_suchnes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tathata

영어 용어 : suchness

한자 표기 : 眞如

용어 설명 : 1부 2.4.2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아쉬바고사 (in_asvaghosa)

사용한 철학 문헌 : 대승기신론 (in_asvaghosa_gisinnon)

사용한 내용 토픽 :

3.3 각(覺)

- 토픽명 : 각 (대승기신론)
- 토픽 ID : t3
- 상위 토픽명 : 각
- 상위 토픽 ID : t_in_enlightenment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bodhi

영어 용어 : enlightenment

한자 표기 : 覺

용어 설명 : 1부 2.4.3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3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아쉬바고사 (in_asvaghosa)

사용한 철학 문헌 : 대승기신론 (in_asvaghosa_gisinnon)

사용한 내용 토픽 :

3.4 훈습

- 토픽명 : 훈습 (대승기신론)
- 토픽 ID : t4
- 상위 토픽명 : 훈습
- 상위 토픽 ID : t_in_perfum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vasana

영어 용어 : perfuming

한자 표기 : 薰習

용어 설명 : 1부 2.4.4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4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아쉬바고사 (in_asvaghosa)

사용한 철학 문헌 : 대승기신론 (in_asvaghosa_gisinnon)

사용한 내용 토픽 :

3.5 지관(止觀)

- 토픽명 : 지관 (대승기신론)
- 토픽 ID : t5
- 상위 토픽명 : 지관
- 상위 토픽 ID : t_in_samvip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samatha vipassana

영어 용어 : calming and discerning

한자 표기 : 止觀

용어 설명 : 1부 2.4.5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5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아쉬바고사 (in_asvaghosa)

사용한 철학 문헌 : 대승기신론 (in_asvaghosa_gisinnon)

사용한 내용 토픽 :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1. 일심

1.1 일심의 의미 (e1.1.1 /)

1.1.1 대승

1.1.1.1 대승의 뜻

1.1.1.1.1 대(大) (e1.1.1.1.1.1 / q1.1.1.1.1.2)

1.1.1.1.2 승(乘) (e1.1.1.1.2.1 / q1.1.1.1.2.2)

1.1.2 법 [대승의 법] (e1.1.2.1~2 / q1.1.2.3)

1.2 일심의 양면 [一心二門] (e1.2.1 / q1.2.2)

1.2.1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관계 (e1.2.1.1~2 /)

2. 진여 [=심진여]

2.1 진여의 의미 (e2.1.1 / q2.1.2)

2.2 제법(諸法)의 본체(本體) (e2.2.1~2 / q2.2.3)

2.3 이언(離言)진여 (e2.3.1 / q2.3.2)

2.3.1 무상(無相) (e2.3.1.1~3 / q2.3.1.4~5)

- 2.3.2 부사의경계(不思議境界) (e2.3.2.1 / q2.3.2.2)
- 2.3.3 수순(隨順)과 득입(得入) (e2.3.3.1~2 / q2.3.3.3)
- 2.4 의언(依言)진여 (e2.4.1 / q2.4.2)
- 2.4.1 공(空) (e2.4.1.1~2 / q2.4.1.3~4)
- 2.4.2 불공(不空) (e2.4.2.1 / q2.4.2.2)

3. 심생멸

- 3.1 심생멸의 의미 (e3.1.1~2 / q3.1.3)
- 3.2 심생멸의 양면 (e3.2.1 / q3.2.2)
- 3.3 심생멸의 인연 (e3.3.1 / q3.3.2)
 - 3.3.1 의(意)의 전변 [意轉]
 - 3.3.1.1 의(意)의 의미 (e3.3.1.1.1 / q3.3.1.1.2)
 - 3.3.1.2 의(意)의 다섯 가지 전변
 - 3.3.1.2.1 업식(業識) (e3.3.1.2.1.1 / q3.3.1.2.1.2)
 - 3.3.1.2.2 전식(轉識) (e3.3.1.2.2.1 / q3.3.1.2.2.2)
 - 3.3.1.2.3 현식(現識) (e3.3.1.2.3.1 / q3.3.1.2.3.2)
 - 3.3.1.2.4 지식(智識) (e3.3.1.2.4.1 / q3.3.1.2.4.2)
 - 3.3.1.2.5 상속식(相續識) (e3.3.1.2.5.1 / q3.3.1.2.5.2)
 - 3.3.2 의식의 전변[意識轉]
 - 3.3.2.1 의식의 의미 (e3.3.2.1.1 / q3.3.2.1.2)
 - 3.3.3 삼계유심(三界唯心) (e3.3.3.1 / q3.3.3.2~3)
 - 3.3.4 생멸인연[心意識]의 불가사의 (e3.3.4.1~2 / q3.3.4.3~4)
 - 3.3.5 [무명]염심(染心)
 - 3.3.5.1 [무명]염심의 의미 (e3.3.5.1.1~2 / q3.3.5.1.3)
 - 3.3.5.2 [무명]염심의 여섯 가지 반연(攀緣) (e3.3.5.2.1 /)
 - 3.3.5.2.1 집상응염(執相應染)
 - (e3.3.5.2.1.1 / q3.3.5.2.1.2)
 - 3.3.5.2.2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
 - (e3.3.5.2.2.1 / q3.3.5.2.2.2)

- 3.3.5.2.3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
(e3.3.5.2.3.1 / q3.3.5.2.3.2)
- 3.3.5.2.4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
(e3.3.5.2.4.1 / q3.3.5.2.4.2)
- 3.3.5.2.5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
(e3.3.5.2.5.1 / q3.3.5.2.5.2)
- 3.3.5.2.6 근본업불상응염
(根本業不相應染) (e3.3.5.2.6.1 / q3.3.5.2.6.2)
- 3.3.5.3 무명[염심]의 치단(治斷) (e3.3.5.3.1)
- 3.3.5.4 상응(相應)과 불상응(不相應)의 뜻
(e3.3.5.4.1~3 / q3.3.5.4.4)
- 3.4 [심]생멸상
 - 3.4.1 생멸상의 분별 (e3.4.1.1 / q3.4.1.2)
 - 3.4.2 생멸상의 인(因)과 연(緣) (e3.4.2.1 / q3.4.2.2~3)
- 3.5 생멸문의 자체(自體) 상(相)·용(用) (e3.5.1)
 - 3.5.1 상대(相大) (e3.5.1.1 / q3.5.1.2~4)
 - 3.5.2 용대(用大) (q3.5.2.1~2)
 - 3.5.2.1 응신(應身) (e3.5.2.1.1 / q3.5.2.1.2)
 - 3.5.2.2 보신(報身) (e3.5.2.2.1 / q3.5.2.2.2)
 - 3.5.2.3 응신과 보신의 구분 (q3.5.2.3.1~2)
 - 3.5.2.4 진여대용(眞如代用) (q3.5.2.4.1~2)
- 3.6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e3.6.1 / q3.6.2)

4. 각(覺)

- 4.1 각의 의미
 - 4.1.1 이념(離念) (e4.1.1.1 / q4.1.1.2)
 - 4.1.2 법계일상(法界一相) (e4.1.2.1 / q4.1.2.2)
 - 4.1.3 법신(法身) (e4.1.3.1 / q4.1.3.2)
 - 4.1.4 본각(本覺)·시각(始覺)·불각(不覺)

(e4.1.4.1~2 / q4.1.4.3)

4.2 본각(本覺)

4.2.1 본각의 양면 : 성정(性淨)본각과 수염(隨染)본각

(e4.2.1.1)

4.2.2 성정(性淨)본각 : 환멸문(還滅門)

4.2.2.1 성정본각의 사체상(四體相) (e4.2.2.1.1 / q4.2.2.1.2)

4.2.2.1.1 여실공경(如實空鏡)

(e4.2.2.1.1.1~2 / q4.2.2.1.1.3)

4.2.2.1.2 인훈습경(因薰習鏡) (e4.2.2.1.2.1 / q4.2.2.1.2.2)

4.2.2.1.3 법출리경(法出離鏡)

(e4.2.2.1.3.1 / q4.2.2.1.3.2)

4.2.2.1.4 연훈습경(緣薰習鏡)

(e4.2.2.1.4.1 / q4.2.2.1.4.2)

4.2.3 수염(隨染)본각 : 유전문(流轉門)

4.2.3.1 수염본각의 두 모습[二相] (e4.2.3.1.1 / q4.2.3.1.2)

4.2.3.1.1 지정상(智淨相)

(e4.2.3.1.1.1~2 / q4.2.3.1.1.3~5)

4.2.3.1.2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

(e4.1.3.1.2.1 / q4.1.3.1.2.2)

4.3 시각의 사상(四相) (e4.3.1)

4.3.1 범부각(凡夫覺) (e4.3.1.1~2 / q4.3.1.3)

4.3.2 상사각(相似覺) (e4.3.2.1 / q4.3.2.2)

4.3.3 수분각(隨分覺) (e4.3.3.1 / q4.3.3.2)

4.3.4 구경각(究竟覺) (e4.3.4.1~2 / q4.3.4.3~4)

4.4 무념(無念) (e4.4.1~2 / q4.4.3)

5. 불각 [=무명]

5.1 근본불각 (e5.1.1 / q5.1.2)

5.2 지말불각

- 5.2.1 삼세(三細) (e5.2.1.1 / q5.2.1.2)
 - 5.2.1.1 무명업상(無明業相) (e5.2.1.1.1 / q5.2.1.1.2)
 - 5.2.1.2 능견상(能見相) (e5.2.1.2.1 / q5.2.1.2.2)
 - 5.2.1.3 경계상(境界相) (e5.2.1.3.1 / q5.2.1.3.2)
- 5.2.2 육추(六麤) (e5.2.2.1 / q5.2.2.2)
 - 5.2.2.1 지상(智相) (e5.2.2.1.1 / q5.2.2.1.2)
 - 5.2.2.2 상속상(持續相) (e5.2.2.2.1 / q5.2.2.2.2)
 - 5.2.2.3 집취상(執取相) (e5.2.2.3.1 / q5.2.2.3.2)
 - 5.2.2.4 계명자상(計名字相) [=假名言相]
 - (e5.2.2.4.1 / q5.2.2.4.2)
 - 5.2.2.5 기업상(起業相) (e5.2.2.5.1 / q5.2.2.5.2)
 - 5.2.2.6 업계고상(業繫苦相) (e5.2.2.6.1 / q5.2.2.6.2)
- 5.3. 각과 불각의 관계 (q5.3.2)
 - 5.3.1 동상(同相) (e5.3.1.1~2 / q5.3.1.3)
 - 5.3.2 이상(異相) (e5.3.2.1~2 / q5.3.2.3)

6. 훈습(薰習)

- 6.1 훈습의 의미 [염정(染淨)훈습] (q6.1.1)
- 6.2 훈습의 네 요건 (q6.2.1)
- 6.3 염(染)훈습
 - 6.3.1 염훈습의 구조 (e6.3.1.1~2 / q6.3.1.3)
 - 6.3.2 무명(無明)훈습
 - 6.3.2.1 근본(根本)훈습 (e6.3.2.1.1 / q6.3.2.1.2)
 - 6.3.2.2 소기견애(所起見愛)훈습 (e6.3.2.2.1 / q6.3.2.2.2)
 - 6.3.3 망심(妄心)훈습
 - 6.3.3.1 업식근본(業識根本)훈습
 - (e6.3.3.1.1~2 / q6.3.3.1.3)
 - 6.3.3.2 증장분별사식(增長分別事識)훈습
 - (e6.3.3.2.1 / q6.3.3.2.2)

- 6.3.4 망경계(妄境界)훈습
 - 6.3.4.1 증장념(增長念)훈습 (e6.3.4.1.1)
 - 6.3.4.2 증장취(增長取)훈습 (e6.3.4.2.1)
 - 6.4 정(淨)훈습
 - 6.4.1 정훈습의 구조 (e6.4.1.1~2 / q6.4.1.3~4)
 - 6.4.2 진여(眞如)훈습 (e6.4.2.1 / q6.4.2.2)
 - 6.4.2.1 자체상(自體相)훈습 (e6.4.2.1.1 / q6.4.2.1.2~5)
 - 6.4.2.2 용(用)훈습
 - 6.4.2.2.1 용훈습의 의미 (e6.4.2.2.1.1~2 / q6.4.2.2.1.3)
 - 6.4.2.2.2 차별연(差別緣)
 - 6.4.2.2.2.1 차별연의 의미
 - (e6.4.2.2.2.1.1 / q6.4.2.2.2.1.2)
 - 6.4.2.2.2.2 차별연의 종류
 - (e6.4.2.2.2.2.1 / q6.4.2.2.2.2.2)
 - 6.4.2.2.3 평등연(平等緣) (e6.4.2.2.3.1 / q6.4.2.2.3.2)
 - 6.4.2.3 체용(體用)훈습 (e6.4.2.3.1)
 - 6.4.2.3.1 미상응(未相應) (e6.4.2.3.1.1 / q6.4.2.3.1.2)
 - 6.4.2.3.2 이상응(已相應) (e6.4.2.3.2.1 / q6.4.2.3.2.2)
 - 6.4.3 망심(妄心)훈습 (e6.4.3.1)
 - 6.4.3.1 분별사식(分別事識)훈습 (e6.4.3.1.1 / q6.4.3.1.2)
 - 6.4.3.2 의(意)훈습 (e6.4.3.2.1 / q6.4.3.2.2)
- 6.5 정훈습과 염훈습의 차별 (e6.5.1 / q6.5.2)

7. 지혜

- 7.1 사건의 대치 (q7.1.1)
 - 7.1.1 인아견(人我見) (q7.1.1.1)
 - 7.1.1.1 집공위성(執空爲性) (e7.1.1.1.1 / q7.1.1.1.2~3)
 - 7.1.1.2 집법위공(執法爲空) (e7.1.1.2.1 / q7.1.1.2.2)
 - 7.1.1.3 집성위색(執性爲色) (e7.1.1.3.1 / q7.1.1.3.2)

- 7.1.1.4 집성유염(執性有染) (e7.1.1.4.1 / q7.1.1.4.2)
- 7.1.1.5 집시종유염(執始終有染) (e7.1.1.5.1 / q7.1.1.5.2)
- 7.1.2 법아견(法我見) (e7.1.2.1 / q7.1.2.2)
- 7.2 궁극적 지혜 (e7.2.1 / q7.2.2)

8. 수행 :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 (/ q8.1)

8.1 발심 (/q8.1.1)

8.1.1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8.1.1.1 신성취발심의 인연 (e8.1.1.1.1~2 / q8.1.1.1.3~4)

8.1.1.2 신성취발심의 종류

8.1.1.2.1 직심(直心) (e8.1.1.2.1.1 / q8.1.1.2.1.2)

8.1.1.2.2 심심(深心) (e8.1.1.2.2.1 / q8.1.1.2.2.2~3)

8.1.1.2.3 대비심(大悲心) (e8.1.1.2.3.1 / q8.1.1.2.3.2)

8.1.1.3 선법(善法)수행의 방편

8.1.1.3.1 행근본(行根本)방편 (e8.1.1.3.1.1 / q8.1.1.3.1.2)

8.1.1.3.2 능지(能止)방편 (e8.1.1.3.2.1 / q8.1.1.3.2.2)

8.1.1.3.3 발기선근증장(發起善根增長)방편
(e8.1.1.3.3.1 / q8.1.1.3.3.2)

8.1.1.3.4 대원평등(大願平等)방편

(e8.1.1.3.4.1 / q8.1.1.3.4.2)

8.1.1.4 신성취발심의 공덕 (e8.1.1.4.1 / q8.1.1.4.2~4)

8.1.2 해행발심(解行發心) (e8.1.2.1 / q8.1.2.2)

8.1.3 증발심(證發心)

8.1.3.1 증발심의 의미 (e8.1.3.1.1 / q8.1.3.1.2~3)

8.1.3.2 증발심의 양상[相] (e8.1.3.2.1 / q8.1.3.2.2)

8.1.3.3 증발심의 공덕 (e8.1.3.3.1 / q8.1.3.3.2~4)

8.2 신심의 수행 (e8.2.1 / q8.2.2)

8.2.1 사신(四信) (e8.2.1.1 / q8.2.1.2)

8.2.2 오행(五行) (q8.2.2.1)

- 8.2.2.1 보시(布施) (e8.2.2.1.1 / q8.2.2.1.2)
- 8.2.2.2 지계(持戒) (q8.2.2.2.1)
- 8.2.2.3 인욕(忍辱) (e8.2.2.3.1 / q8.2.2.3.2)
- 8.2.2.4 정진(精進) (q8.2.2.4.1~2)
- 8.2.2.5 지관(止觀)
 - 8.2.2.5.1 지관의 의미 (e8.2.2.5.1.1 / q8.2.2.5.1.2)
 - 8.2.2.5.2 지(止)
 - 8.2.2.5.2.1 지를 닦는 방법
 - (e8.2.2.5.2.1.1 / q8.2.2.5.2.1.2~3)
 - 8.2.2.5.2.2 진여삼매 (e8.2.2.5.2.2.1 / q8.2.2.5.2.2.2~4)
 - 8.2.2.5.2.3 삼매 수행의 이익 (q8.2.2.5.2.3)
 - 8.2.2.5.3 관(觀)
 - 8.2.2.5.3.1 관을 닦는 까닭 (q8.2.2.5.3.1.1)
 - 8.2.2.5.3.2 관을 닦는 방법
 - 8.2.2.5.3.2.1 무상관(無常觀) (q8.2.2.5.3.2.1.1)
 - 8.2.2.5.3.2.2 대비관(大悲觀) (q8.2.2.5.3.2.2.1)
 - 8.2.2.5.3.2.3 서원관(誓願觀) (q8.2.2.5.3.2.3.1)
 - 8.2.2.5.3.2.4 정진관(精進觀) (q8.2.2.5.3.2.4.1)
 - 8.2.2.5.4 지관의 겸수(兼修)
 - (e8.2.2.5.4.1 / q8.2.2.5.4.2~3)
- 8.2.3 염불 (e8.2.3.1 / q8.2.3.2~3)
- 8.3 수행의 장애 (e8.3.1 / q8.3.2)
 - 8.3.1 마장(魔障) (q8.3.1~3)
 - 8.3.2 마장의 대처 (q8.3.2.1)
- 8.4 수행의 권장 (q8.4.1~4)

제 3 부 『대승기신론』 내용 분석 연구

1. 일심(一心)

1.1 일심의 의미

(e1.1.1) 염정(染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이 둘이 없어, 진망(眞妄)의 이문(二門)이 다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一)’ 이라 이름하며, 이 둘이 없는 곳이 모든 법 중의 실체인지라 허공과 같지 아니하여 본성이 스스로 신해(神解)하기 때문에 ‘심(心)’ 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일(一)이 될 수 있는가? ‘일(一)’ 도 있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심(心)’ 이라 말하는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것이니 무엇이라고 지목할지를 모르겠으나, 억지로 이름붙여 일심(一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AMFC 88)

1.1.1 대승

1.1.1.1 대승의 뜻

1.1.1.1.1 대(大)

(e1.1.1.1.1.1) ‘대승의 의(義)’ 란 ‘대승이란 명칭이 나타내는 뜻’ 을 말한다. 일체법은 본체(本體)와 성상(性相)과 작용(作用)의 측면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체(體)·상(相)·용(用)이다. 여기서는 대승이란 명칭 중의 대(大)를 체·상·용으로 풀이하고 있다. 체(體)의 큼[大]

은 중생의 진여본성의 평등한 본성을 가리키므로 진여문에 해당하고, 상(相)의 큼[大]은 진여본성에 갖추어져 있는 무한한 공덕을, 그리고 용(用)의 큼[大]은 진여본성을 갖추고 있는 중생이 그 선행의 과보를 얻는 작용을 가리킨다. 뒤의 상(相)·용(用)은 생멸문에 배대된다.

(q1.1.1.1.1.2) 이 마음의 진여상(眞如相)이 대승의 체(體)를 보이기 때문이고,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이 대승 자체의 상(相)·용(用)을 잘 보이기 때문이다. [대승의] 의(義)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체대(體大)니, 일체의 법은 진여로서 평등하여 증감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상대(相大)니, 여래장(如來藏)에 한량없는 성공덕(性功德)이 갖추어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용대(用大)니,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착한 인과[善因果]를 잘 내기 때문이다.

1.1.1.1.2 승(乘)

(e1.1.1.1.2.1) 승(乘)은 수레이다. 비유로서 가르침 혹은 수행도(修行道)를 가리킨다. 모든 부처가 의거한다는 것은 [성불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는 의미이며, 모든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 의지한다는 것은 [보살이 보리심을 낸다는]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q1.1.1.1.2.2) 일체의 여러 부처가 본래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일체의 보살이 모두 이 법에 의거하여 여래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1.1.2 법 [대승의 법]

(e1.1.2.1) 여기서 법(法, dharma)은 인식된 현상을 가리킨다. 인식주관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존재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현상 [및 사물]은 인식작용과의 상관관계 내에서만 유의미하다. 따라서 법은 세간법으로서 객관적 현상과 주관적 인식작용을 동

시에 의미하며, 동시에 출세간법을 두루 포괄한다. 요컨대 법은 일체의 모든 사물이다. 대승의 법이 중생심이라는 것도 같은 뜻이다.

(e1.1.2.2) 대승 중에 일체의 모든 법이 다 별다른 체가 없고 오직 일심(一心)으로 그 자체를 삼기 때문에, ‘법이란 중생심을 말한다’ 고 한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한다’ 고 한 것은 대승법이 소승법과 다름을 나타내니, 참으로 이 마음이 모든 법을 통섭(通攝)하며, 모든 법의 자체가 오직 이 일심이기 때문이다. 이는 소승에서 일체의 모든 법이 각각 자체가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일심을 대승의 법이라 말하는 것이다.(AMFC 80)

(q1.1.2.3) [대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衆生心)을 말함이니 이 마음이 곧 일체의 세간법(世間法)과 출세간법(出世間法)을 포괄하며 [...]

1.2 일심의 양면 [一心二門]

(e1.2.1) 불교 교학에서 문(門, sk. dvāra)은 흔히 분야, 분과, 학설 등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해석은 ‘가르침[teaching]’ 이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에서 “적멸(寂滅)이라는 것은 일심(一心)이라 이름하며, 일심이란 여래장을 이른다.” 는 능가경문을 인용하고 있다.(AMFC 86) 적멸은 무자성이요, 공성, 진여, 열반과 같으므로 적멸이 일심이라는 것은 심진여의 측면을 가리킨 것이다. 이어서 일심을 여래장이라고 이름한다는 논문의 해석에서 “여래의 본성이 숨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장을 심생멸문으로 보고 있다.(AMFC 87)

(q1.2.2) 일심법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이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요, 둘째는 심생멸문(心生滅門)이니 이 두 가지 문이 모두 각각 일체의 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1.2.1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관계

(e1.2.1.1)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문이 세간과 출세간법을 포괄하는 일심의 두 측면이므로 일체법을 모두 아우른다는 것은 당연하나, 두 가지 문이 각각 일체의 법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여, 생멸 두 문이 통상(通相)과 별상(別相)으로 서로 상입(相入)하며 상의(相依)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e1.2.1.2) 비유하자면 금으로 가락지를 만들고 불상을 만든다고 할 때 금은 통상이고 진여문이요, 가락지와 불상은 별상이며 생멸문이다. 금의 성품은 진여문에 속하는 것이지만 통상인 금이 별상인 가락지와 불상 등을 포섭하므로 이미 별상으로서의 생멸문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생멸문이 별상으로서 가락지와 불상 등 천만가지 형상을 갖더라도 진여문으로서의 금의 성품을 잃지 않으므로 또한 진여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여문과 생멸문이 각각 일체법을 총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진여문과 생멸문이 서로 여의지 않는 것은 같은 이치로 이(理)와 사(事)의 관계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2. 진여[=심진여]

2.1 진여의 의미

(e2.1.1) 진여(眞如, tathata)란 사물이 망념[虛妄分別識]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킨다. 불교는 그것을 떠나 달리 초월적 진리를 세우지 않으므로 궁극적 진리라는 의미도 갖는다. 여기서는 산스크리트어 tathata에 대한 한역 진여(眞如)를 진(眞)과 여(如)로 나누어 그 뜻을 밝혔다. 제법이 다 참되다는 것은 참되지 않은 것에 대

해서 참되다는 것이 아니라, 무명번뇌에 의한 망분별만 떠나면 산하대지가 다 그대로 진리의 드러남이라는 의미에서 참되다는 것이며, 일체 제법이 다 같다는 것은 차별상으로 드러나되 그 성품은 본래 평등함을 말하는 것이다.

(q2.1.2)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모두 다 참[眞]이기 때문이며, 또한 주장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모두 똑 같기[如] 때문이다.

2.2 제법(諸法)의 본체

(e2.2.1) 여기서 ‘심진여(心眞如)’라고 한 것은 만법이 일심으로 포섭됨을 보인 것이다. 마음을 떠난 법이 없고 일체제법이 마음으로 귀일하므로 ‘진여’는 곧 ‘심진여’인 것이다. 심진여가 바로 일법계라는 것은 진여문이 의지하고 있는 체가 일법계라는 것이고, 일법계란 다름 아닌 일심이다. 일법계의 일(一) 역시 전체로서의 하나, 무차별상으로서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법계란 일체의 현상/사물인 동시에 그것들을 투사하는 마음이므로 진여이며, 일심인 것이다. 따라서 심진여=일심=일법계이다.

(e2.2.2) 원효는 ‘대총상’에 대해 별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진여문의 총상만을 취한 것이라 하고, 나머지 논문의 법, 문, 체를 각각 병렬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궤범으로서 참된 이해를 내기 때문에 ‘법(法)’이라 이름하며, 통틀어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門)’이라 이름한다. 이는 일법계 전체가 생멸문이 되는 것과 같이 이처럼 일법계 전체가 진여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체(體)’라고 하는 것이다.”(AMFC 104)

(q2.2.3) 심진여(心眞如)란 바로 일법계(一法界)의 대총상(大總相) 법문(法門)인 체(體)이니 [...]

2.3 이언(離言)진여

(e2.3.1) 심진여는 일법계, 일심과 같은 의미라고 하였다. 다만 해석자의 서 있는 위치와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언설상과 명자상을 여의었다는 것은 언어와 문자로 드러낼 수 없다는 뜻이다. 말과 글은 일체의 사물을 나타내는 기호요 약속의 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심연상을 떠났다는 것 또한 같은 의미이다. 왜냐하면, 심연상이란 마음이 대상과 관계하는 양상인데, 이미 대상을 반연(攀緣)하고 있다면 그 관계 양상의 통로는 생각이요, 생각이야말로 언어 문자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과 언어를 떠난 제법의 진실한 모습은 차별이 없이 평등하며, 변괴(變壞)되지 않는 것이다.

(q2.3.2)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 본래부터 언설상(言說相)을 여의었으며 명자상(名字相)을 여의었으며, 심연상(心緣相)을 여의어서, 결국 평등하게 되고,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도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오직 일심(一心)뿐인 것이니, 그러므로 진여라 이름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일체의 언설은 임시적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요, 다만 망념을 따른 것이어서 그 실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2.3.1 무상(無相)

(e2.3.1.1) 상(相, laksana)은 특히 대승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 개념이다. 흔히 인식 주관인 [허망분별한] 객관 대상의 형상, 특성, 감정 등으로서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다. “망념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삼라만상의 모든 차별상은 망념의 소산이며, 망념을 떠나면 일미평등(一味平等)의 법성(法性)을 체인(體認)하게 되는 것이다.

(e2.3.1.2) ‘말에 의해 말을 버린다’ [因言遣言]는 것은 말과 대상의 실체성을 함께 버린다는 뜻이다. 귀류논증 역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지

만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입론이 아닌 파사임과 같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 때 언설의 제한적 효용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손가락이 곧 달은 아니지만 달을 정확히 지향함으로써 달을 찾는 데 도움을 주듯이 언어가 진리를 가리키는 효용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2.3.1.3) “일체의 법이 모두 참된 것”은 차별을 파괴하지 않고, 차별적인 그대로 평등하다는 것이며, 이렇게 평등해서 따로 세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같다고 한 것이다.

(q2.3.1.4) 진여라 말한 것도 상(相)이 없으니 이는 언설의 궁극은 말에 의하여 말을 버리는 것 [因言遣言] 임을 이르는 것이다.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모두 다 참[眞]이기 때문이며, 또한 주장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모두 똑같기[如] 때문이다.

(q2.3.1.5) 이른바 심성이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지만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망념에 의하여 차별이 있으니, 만약 망념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상(境界相)이 없을 것이다.

2.3.2 부사의경계(不思議境界)

(e2.3.2.1) 일체법의 진실상은 말과 글로 도달할 수 없고[言語道斷], 생각의 자취마저 사라진[心行處滅] 부사의경계여서 일체의 언어와 사유를 용납하지 않지만, 억지로 이름붙이기를 진여라고 한 것이다.

(q2.3.2.2) 그러니 일체의 법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2.3.3 수순(隨順)과 득입(得入)

(e2.3.3.1) 진여란 것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겠으며[隨順],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인가.[正觀] 먼저 수순이란 ‘말이나 생각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또 헤아릴 것도 실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일체법[의 진실상]을 중생의 일상적인 언어와 사유의 영역 속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수순이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언어와 사유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어와 사유를 쉬고 버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떠나는 것이 곧 정관이며, 정관은 곧 정견(正見)이다.

(e2.3.3.2)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는 설명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고, 이어서 설명과 생각으로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유(有)에 대한 집착을 부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비공비유(非空非有)의 중도(中道)를 수순이라고 본 것이다.

(q2.3.3.3) 묻기를, “만약 이와 같은 뜻 [일체의 법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름한 것]이라면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수순(隨順)하여야 정관(正觀)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가?” 답하기를, “만약 일체의 법이 설명되기는 하나 설명할 수도, 설명할 만한 것도 없으며, 생각되기는 하나 역시 생각할 수도 생각할 만한 것도 없는 줄 안다면 이를 수순이라고 하며, 만약 생각을 여윈다면 정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2.4 의언(依言)진여

(e2.4.1) 진여란 궁극적으로는 언어와 사유의 대상이 아니지만, 언설에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일상적 차원에서 언설이 허용된다. 진여란 명칭이 이미 그러하지만, 진여를 분별하는 언설 중에 공(空)이 있다. 여기서는 진여를 여실공과 여실불공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타낸다. 여실공은 부정으로서의 진실성으로서, 진여가 비실재적이며 비본질적인 일체의

사물의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어 참으로 틀림없는 실재(實在)라는 의미이며, 여실불공은 긍정으로서의 진실성으로서 진여가 무한한 공덕들을 내포하며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q2.4.2) 다시 이 진여란 언설에 의하여 분별함에 있어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여실공(如實空)이니 필경에는 실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여실불공(如實不空)이니 그 자체에 번뇌가 없는 본성의 공덕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2.4.1 공(空)

(e2.4.1.1) 공(空)은 비었다는 것, 즉 없다는 것인데, 무엇이 없다는 것인가? 인식주체[能]로서의 심념(心念)이 없고, 인식객체[所]로서 일체법의 차별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사구백비(四句百非)로서 사물의 공성(空性)은 형상[相]의 유무(有無)와 일이(一異)에 있어서 어떤 언어적 규정도 떠나 있음을 밝혔으니, 일체법의 본체가 상주불변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e2.4.1.2) 즉 유무의 경우, 비유(非有)와 비무(非無)는 존재와 비존재의 상대적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 자체가 다시 하나의 입장으로 성립하면서 다시 상대적 관점이 정립된다. 비비유(非非有)와 비비무(非非無)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관점이 부정된다면 유와 무가 동시에 성립[有無俱相]하는가 하면 그것도 또한 아니다. 일이(一異)의 논파도 유무의 경우에 준한다.

(q2.4.1.3) 공(空)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부터 일체의 염법(染法)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는 일체법의 차별되는 모양을 여임을 말한 것이다. 왜냐 하면 허망한 심념(心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여의 자성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며, 모양이 있지 않은 것도 아니요 모양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며, 유(有)와 무(無)를 함께 갖춘 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하며, 또한 같은 모양도 아니요 다른 모

양도 아니며, 같은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요, 다른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며, 같고 다른 모양을 함께 갖춘 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q2.4.1.4)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체의 중생이 망심이 있음으로 해서 생각할 때마다 분별하여 다 진여와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라 말하지만, 만약 망심을 떠나면 실로 공이라 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2.4.2 불공(不空)

(e2.4.2.1) 일체법의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으므로 진심(眞心)이라고 한 것은 공(空)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 한 것이고, 이 진심이 항상하여 변하지 않고 정법이 만족한다는 것이 불공(不空)에 대한 설명이다. 공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공능을 드러내려는 것이 불공(不空)의 관점인 것이다. 그렇긴 해도 공(空)과 마찬가지로 불공(不空) 역시 취할 만한 상(相)이 없다. 그리고 번뇌망념을 떠난 무분별지로 증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이나 불공은 차이가 없다.

(q2.4.2.2) 불공이라 말하는 것은 이미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이는 진심(眞心)이며, 이 진심은 항상하여 변하지 않고 정법(淨法)이 만족하기 때문에 불공이라 이름한다. 그러나 또한 취할 만한 상(相)이 없으니, 망념을 여윈 경계는 오직 증득함으로써만 상응하기 때문이다.

3. 심생멸

3.1 심생멸의 의미

(e3.1.1) ‘여래장에 의하므로 생멸심이 있다’는 것은 무명의 바람이 움직임에 의하여 생멸을 일으키므로 생멸이 여래장에 의지한다고 말한

것이다. 여래장이란 다른 말로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다. 여기서 ‘의지한다’ 혹은 ‘의한다’는 표현은 주의를 요한다. 여래장과 생멸심의 관계는 사물의 고요함[靜, 여래장]과 움직임[動, 생멸심]의 관계와 같다. 사물의 고요한 상태가 곧 움직이는 상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요함을 떠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또 아니다. 이것을 ‘의지한다[依]’고 표현한 것이다.

(e3.1.2) 이를 기신론은 바닷물과 파도와 바람의 관계를 들어, 고요한 바닷물인 여래장에 무명(無明)의 바람이 불어와 생멸심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으로 비유한다. 이 때 여래장과 생멸심은 같은 것이면서 다르고, 다른 것이면서 같다. 그러므로 논문에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이름하여 알라야식이라고 한다”고 논한 것이다.

(q3.1.3) 심생멸(心生滅)이란 여래장에 의하므로 생멸심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이름하여 알라야식(阿黎耶識)이라고 하는 것이다.

3.2 심생멸의 양면

(e3.2.1) 여기서 각과 불각은 형식적으로는 심생멸, 즉 알라야식의 양면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이미 심생멸[알라야식]과 심진여[여래장]가 둘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결국 심진여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 심생멸의 양면인 각과 불각을 마음의 양면인 여래장과 알라야식에 배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가 법의 작용[用]의 측면에 가까운 것이라면 후자는 법의 본체[體]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q3.2.2) 이 식 [알라야식]에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일체법을 포괄하며 일체법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각(覺)의 뜻이고, 둘째는 불각(不覺)의 뜻이다.

3.3 심생멸의 인연

(e3.3.1) 원효는 『대승기신론』에서 “ ‘인연’ 이라고 말한 것은 알라야식의 심체가 모든 법을 변작(變作)하는 것이니 이것이 생멸인(生滅因)이고, 근본무명이 심체(心體)를熏습(薰習)하여 움직이게 하니 이것이 생멸연(生滅緣)이다” 라고 했다.(AMFC 214) 일체법이 왜곡되게 나타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알라야식이므로 생멸인이 되고, 이러한 알라야식의 심체가 근본무명에 의해熏습되고 작용하므로 생멸연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무명이 알라야식을 떠나 있지 않고 알라야식은 또한 중생의 마음이므로 ‘중생의 마음에 의해 의와 의식이 전변한다’ 고 한 것이다. 즉 의와 의식의 전변은 알라야식의 전변이다.

(q3.3.2) 다음 생멸인연이라는 것은, 이른바 중생이 마음에 의하여 의(意)와 의식(意識)이 전변하기 때문이다.

3.3.1 의(意)의 전변[意轉]

3.3.1.1 의(意)의 의미

(e3.3.1.1.1) 서두에서 무명이 알라야식에熏습되어있다고 했으니 전자는 생멸의 연(緣)이요, 후자는 생멸의 인(因)이다. 불각은 곧 무명이니, 무명에 의해 알라야식이 움직여 그 작용이 드러나고 경계를 취하며 전전(轉轉)하여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의(意)라고 하였다. 의(意)의 다섯 가지 이름은 업식(業識), 전식(轉識), 현식(現識), 지식(智識), 상속식(相續識)이다. 이 다섯 가지가 차례로 전개하여 모든 경계에 대해 의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의(意)라고 한다.

(q3.3.1.1.2) 알라야식에 의하여 무명(無明)이 있다고 말하니, 불각하여 일어나서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으며 경계를 취할 수 있어서, 망념을 일으켜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意)’ 라고 말하였다. 이 의는 다시

다섯 가지의 이름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인가?

3.3.1.2 의(意)의 다섯 가지 전변

3.3.1.2.1 업식(業識)

(e3.3.1.2.1.1) 마음의 본체 [心體]무명의 혼습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는 것으로 이것이 소위 업식(業識)이라는 것이다.

(q3.3.1.2.1.2) 첫째는 업식이라고 이름하니, 무명의 힘으로 불각하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니, 이를 말한 것이다.

3.3.1.2.2 전식(轉識)

(e3.3.1.2.2.1) 전식(轉識)은 심체가 이미 일어난 업식(業識)을 의지하여 인식주체[能見相]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원효에 의하면 전식에 두 가지 뜻이 있다. 무명에 의해 움직여져서 인식주체[能見]을 구성한다면 [알라야] 본식에 있는 것이고, 경계에 의하여 움직여져서 능견을 구성한다면 칠식(七識)에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전자를 가리킨다.

(q3.3.1.2.2.2) 둘째는 전식이라고 이름하니, 움직여진 마음에 의하여 능히 볼 수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

3.3.1.2.3 현식(現識)

(e3.3.1.2.3.1) 심체가 다시 인식된 현상[能現]을 이룬 것이 현식(現識)인데, 이전의 전식(轉識)의 봄[見]에 의하여 심체에 경계가 나타나는 능현의 작용이 있다. 즉 능견의 작용이 있고 그에 따라 능현의 작용이 있는 것이다. 능현이란 다른 말로 경계상(境界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임의로 일어나서 항상 앞에 있다’는 것은 현식이 알라야식에 있어 모든 능현상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q3.3.1.2.3.2) 셋째는 현식이라고 이름하니, 이른바 일체의 경계를 나타냄이 마치 밝은 거울이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으니, 현식도

그러하여 그 오진(五塵)을 따라서 대상이 이르면 곧 나타내어서 앞뒤가 없다. 왜냐하면 언제나 임의로 일어나서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

3.3.1.2.4 지식(智識)

(e3.3.1.2.4.1) 지식은 제7식으로서 육상(六相) 중의 지상(智相)과 같다. 호오(好惡)를 분별해서 나[我]와 내 것[我所]으로 취착(取着)하므로 ‘염법과 정법’을 분별한다고 하였다.

(q3.3.1.2.4.2) 넷째는 지식이라고 이름하니, 염법(染法)과 정법(淨法)을 분별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3.3.1.2.5 상속식(相續識)

(e3.3.1.2.5.1) 상속식은 곧 의식(意識)으로서 육상(六相) 가운데 상속상(相續相)과 같다. 과거·현재·미래의 인과의 사슬이 유전(流轉)되어 끊이지 않는 힘은 의식(意識)에 있기 때문에 상속식이라고 한다.

(q3.3.1.2.5.2) 다섯째는 상속식이라고 이름하니, 망념이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한량없는 기간의 선악의 업을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또 현재와 미래의 고락 등의 과보를 성숙시켜 어긋남이 없게 하기 때문에 현재 이미 지나간 일을 문득 생각하게 하고 미래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3.3.2 의식의 전변[意識轉]

3.3.2.1 의식의 의미

(e3.3.2.1.1) 의식은 앞의 [의(意)의 다섯 전변 중 마지막인] 상속식이다. 기신론소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분별과 집착으로 뒤의 것을 일으키는 측면은 의(意)로써 설명하고, 견애번뇌[견혹(見惑)과 사혹(思惑)]를 일으켜서 앞의 것을 따라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의식(意識)이라고 한

다. 육진을 분별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은 그 뜻이다. 분리식이라고 한 것은 육근(六根)이 각각 육진(六塵)을 취하기 때문이며, 안팎의 여러 가지 사상(事相)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사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q3.3.2.1.2) 다음에 의식이라고 말한 것은 곧 이 상속식이 모든 범부의 집착함이 점점 깊어짐에 의하여 아(我)와 아소(我所)를 계탁(計度)하여 여러 가지 망집(妄執)으로 일에 따라 반연하여 육진(六塵)을 분별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또한 분리식(分離識)이라고도 이름하고 다시 분별사식(分別事識)이라고도 이름하니, 이 식이 견애번뇌(見愛煩惱)의 증장되는 뜻에 의하기 때문이다.

3.3.3 삼계유심(三界唯心)

(e3.3.3.1) 삼계의 일체법은 모두 불각[無明]의 마음이 움직여서 지어진 허망한 것이어서 참으로 있다고 할 수가 없으나[非有], 마음이 움직여 갖가지 법이 생긴다는 관점에서 일체법은 상[相]으로나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非無]. 불각의 마음이 움직여 일체의 경계가 나타나므로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긴다’고 하였고, 무명심이 사라져 경계가 따라서 없어진다면 망분별에 의한 일체법이 사라질 것이므로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q3.3.3.2) 이러므로 삼계(三界)는 거짓된 것이요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니, 마음을 여의면 육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일체법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 잘못 생각하여 생긴 것[妄念而生]이어서 일체의 분별은 곧 자심(自心)을 분별하는 것이니, 마음은 마음을 보지 못하여 얻을 만한 상(相)이 없기 때문이다.

(q3.3.3.3) 세간의 모든 경계는 다 중생의 무명망심에 의하여 머물러 있게 되니, 이러므로 일체법은 거울 가운데의 형상과 같아서 얻을 만한 실체가 없고, 오직 마음일 뿐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의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의 법이 없어지

기 때문이다.

3.3.4 생멸인연[心意識]의 불가사의

(e3.3.4.1) 정신(正信)이란 십신(十信) 중의 첫 번째인 신심(信心)을 가리키며, 보살구경지는 보살 오십위 중 마지막 십지 법운지(法雲地)를 가리킨다. 불변(不變)은 수연(隨緣)의 대(對)가 되는 개념으로 전자는 진여문에 상응하고 후자는 생멸문에 상응한다. ‘심성이 항상 망념이 없다’는 것은 심성이 본래 걱정하기 때문이다. 무명은 어떤 시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다른 시초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므로 무시(無始)라 하는데 이것은 『대승기신론』에서 “홀연(忽然)이 무명망풍(無明妄風)이 일어났다”고 말한 것과 같다.

(e3.3.4.2) 심체 전상(轉相)의 부사의경계에 대한 『대승기신론별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 심체가 한결같이 생멸하기만 하여 염심(染心) 뿐이라면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또 만약 한결같이 상주(常住)하기만 하여 오직 정심(淨心)일 뿐이라도 이 또한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 그러나 이제 이 마음은 체(體)가 깨끗한 채로 물들어 있으며, 마음이 움직이면서 고요하여 염정(染淨)의 두 모습이 없으며, 동정(動靜)의 구별이 없다. 염정의 둘이 없고, 동정의 구별이 없지만 또한 하나도 아니니, 이와 같이 절묘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것이다.” (AMFA 239)

(q3.3.4.3) 무명의 혼습에 의하여 일어난 식(識)이란 범부나 이승(二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살이 처음의 정신(正信)에서 발심하고 관찰하여 법신을 증득하게 되면 조금 알게 되며, 보살구경지(菩薩究竟地)에 이른다 하더라도 다 알 수는 없고 오직 부처만이 끝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어째서인가? 이 마음이 본래부터 자성이 청정하지만 무명이 있어서 이 무명에 의하여 물들게 되어 그 염심(染心)이 있는 것이니, 비록 염심이 있으나 항상 변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이러한 뜻은 오직 부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q3.3.4.4) 이른바 심성(心性)이 항상 망념이 없기 때문에 불변(不變)이라 이름하며, 하나의 법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응하지 아

니하여 홀연히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무명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3.3.5 [무명]염심(染心)

3.3.5.1 [무명]염심의 의미

(e3.3.5.1.1) 중생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혹하게 하여 진여평등의 이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번뇌의 장애를 번뇌애라고 하고, 지애 역시 진리에 대한 지견을 장애하는 근본무명을 가리킨다. 세간의 자연업지는 근본지애 의해 진여 법성을 깨친 연후에 세사(世事)를 분별하는 후득지(後得智)이다.

(e3.3.5.1.2) ‘염심에 의하여 볼 수 있으며 나타낼 수 있으며, 잘못된 경계를 집착한다’는 것은 의(意)의 전변[意轉]인 전식(轉識), 현식(現識), 지식(智識)의 전개를 가리킨 것이다.

(q3.3.5.1.3) 염심(染心)의 뜻이란 번뇌애(煩惱碍)라 이름하는 것이니 진여의 근본지(根本智)를 막기 때문이요, 무명의 뜻이란 지애(智碍)라 이름하는 것이니 세간의 자연업지(自然業智)를 막기 때문이다. 이 뜻이 무엇인가? 염심에 의하여 능견과 능현을 구성하여 잘못 경계에 집착하여 평등성을 어기기 때문이며, 일체법이 항상 고요하여 일어나는 상이 없으나 무명불각이 망령되이 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경계에 수순(隨順)하는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3.3.5.2 [무명]염심의 여섯 가지 반연(攀緣)

(e3.3.5.2.1) 여기서 말하는 육염(六染)은 위의 의전(意轉)과 의식전(意識轉)에 상응한다. 다만 의전과 의식전에서는 미세[細]망념에서 거친[麤]망념의 순으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망념의 치단(治斷)까지 밝히려 하기 때문에 반대의 순서로 서술하였다.[이하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참조]

3.3.5.2.1 집상응염(執相應染)

(e3.3.5.2.1.1) 집상응염은 곧 의식으로서 견애번뇌(見愛煩惱)가 증장됨을 가리키며 추분별집착에 해당한다. 신상응지란 십해(十解)의 자리에서 신근(信根)이 성취되어 물러남이 없는 경지를 말한다.

(q3.3.5.2.1.2) 첫째는 집상응염이니, 이승의 해탈한 이와 신상응지(信相應地)의 사람에 의하여 멀리 여의기 때문이다.

3.3.5.2.2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

(e3.3.5.2.2.1) 다섯 가지 의전(意轉) 가운데 상속식으로서 법집(法執)과 상응하여 상속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보살 초지(初地)에서 삼무성(三無性)을 증득하여 법집분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정심지(淨心地)에 이르러 구경에 여윈다’ 고 하였다. 정심지는 번뇌를 떠나 마음이 청정하게 된 단계로, 십지(十地) 가운데 환희지(歡喜地)를 가리킨다. 삼무성이란 유식(唯識)의 삼성(三性)[변계(遍計), 의타(依他), 원성(圓成)]을 공성(空性)으로 파악한 것으로서 상무성(相無性), 생무성(生無性), 승의무성(勝義無性)을 말한다.

(q3.3.5.2.2.2) 둘째는 부단상응염이니, 신상응지에 의하여 방편을 수학(修學)하여 점점 버려서 정심지(淨心地)에 이르러서 구경에 여의기 때문이다.

3.3.5.2.3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

(e3.3.5.2.3.1) 다섯 가지 의전(意轉) 중의 네 번째인 지식(智識)이다. 다음은 기신론소의 설명이다: 칠지(七地) 이하에서는 이지(二智)가 일어날 때에 나타나지 않다가 관(觀)에서 벗어나 마음이 사물을 함부로 반연할 때 드러나므로 ‘점차 여윈다’ 고 하였고, 칠지 이상에서는 관(觀)이 오래 지속되므로 마나식(末那識)이 현행하지 못하므로 무상방편지(無相方便地)에서 구경에 여윈다고 하였다. 이지(二智)란 견도(見道)의 두 가지 지혜. 법공지(法空智)와 아공지(我空智).

(q3.3.5.2.3.2) 셋째는 분별지상응염이니, 구계지(具戒地)에 의하여 여
월 수 있기 때문이다.

3.3.5.2.4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

(e3.3.5.2.4.1) 의전(意轉) 중 세 번째 현식(現識)이다. 맑은 거울면
에 색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으므로 현색불상응염이라고 이름하였다. 색
자재지(色自在地)는 제팔지(第八地)로서 이 경지에서는 이미 정토(淨
土)의 자재함을 얻어서 예토(穢土)의 추색(麤色)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
문에 ‘여월 수 있다’ 고 했다.

(q3.3.5.2.4.2) 넷째는 현색불상응염이니, 색자재지(色自在地)에 의하
여 여월 수 있기 때문이다.

3.3.5.2.5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

(e3.3.5.2.5.1) 의전(意轉) 가운데 두 번째인 전식(轉識)으로서 마음
을 움직여 인식주체[能見]를 구성한다. 심자재지(心自在地)는 제구지
(第九地)로서 이미 사무애지(四無碍智)를 얻어서 장애를 가진 조건들
이 일어나지 못하므로 ‘여월 수 있다’ 고 하였다. 사무애지는 법무애
(法無碍), 의무애(義無碍), 사무애(辭無碍), 요설무애(樂說無碍)이다.

(q3.3.5.2.5.2) 다섯째는 능견심불상응염이니, 심자재지(心自在地)에
의하여 여월 수 있기 때문이다.

3.3.5.2.6 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

(e3.3.5.2.6.1) 다섯 가지 의전에서 첫 번째인 업식(業識)으로서 무명
의 힘에 의해 불각하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보살진지(菩薩盡地)
는 제십지(第十地) 무구지(無垢地)에서 여윈다. 이 업식을 떠나면 붓과

보여짐[見相]이 없으나, 업식이 남아 있는 한 인식주체와 객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q3.3.5.2.6.2) 여섯째는 근본업불상응염이니, 보살진지(菩薩盡地)에 의하여 여래지(如來地)에 들어가서 여윌 수 있기 때문이다.

3.3.5.3 무명[염심]의 치단(治斷)

(e3.3.5.3.1) 일법계(一法界)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신상응지(信相應地)로부터 관찰하여 치단(治斷)함을 배우고 정심지(淨心地)에 들어가 분수에 따라 여의게 되며 여래지(如來地)에 이르게 되어야 마침내 여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3.5.4 상응(相應)과 불상응(不相應)의 뜻

(e3.3.5.4.1) 위의 여섯 가지 염심(染心) 중 앞의 셋[집상응염(執相應染),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은 상응이고 뒤의 셋[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 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은 불상응이다.

(e3.3.5.4.2) 상응에 대한 설명에서 ‘심과 염법이 다르다’는 것은 심법과 심소법의 차이를 말하고, ‘염정에 의해 차별한다’는 것은 염정의 모든 법을 분별하여 견(見), 만(慢), 애(愛) 등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지상과 연상이 같다는 것은 능지상(能知相)과 소연상(所緣相)이 같은 것이다. 앞의 세 염(染)이 체(體)와 지(知)와 연(緣)이 같고, 심과 심소가 동시에 있으므로 상응이라고 한다.

(e3.3.5.4.3) 불상응에서 ‘심과 불각이 별다름이 없다’고 한 것은 체가 같지 않다는 것이니, 이미 체가 같지 않으면 지(知)와 연(緣)이 의지할 바가 없다. 따라서 지상과 연상이 다르다고 한 것이다.

(q3.3.5.4.4) 상응의(相應義)라 한 것은 심(心)과 염법(染法)이 달라서

염정(染淨)에 의하여 차별하매 지상(知相)과 연상(緣相)이 같음을 말하기 때문이며, 불상응의(不相應義)란 곧 심과 불각이 항상 별다름이 없어서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않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3.4 [심] 생멸상

3.4.1 생멸상의 분별

(e3.4.1.1) 여섯 염심 중 앞의 셋은 마음과 상응하는 것이며, 그 상(相)이 거칠게 드러나는 것이다. 뒤의 셋은 마음과 상응하지 않으며 그 상이 미세하게 드러난다. 추 중의 추는 셋 중 앞의 둘이고 추 중의 세는 셋 중 뒤의 하나이다. 추 중의 추의 양상이 거칠기 때문에 범부가 아는 것이고, 세 중의 세는 능소(能所)가 나뉘어지지 않아 그 양상이 극히 미세하므로 부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q3.4.1.2) 첫째는 추(麤)니 마음과 더불어 상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세(細)니 마음과 더불어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추 중의 추는 범부의 경계요, 추 중의 세와 세 중의 추는 보살의 경계요, 세 중의 세는 부처의 경계이다.

3.4.2 생멸상의 인(因)과 연(緣)

(e3.4.2.1) 추와 세의 두 부류의 염심이 무명주지(無明住地)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생멸이 무명의 혼습에 의하여 있다’ 고 말한 것이다. 둘을 구분한다면 무명인(無明因)에 의해 불상응심이 생기고, 경계연(境界緣)에 의해 상응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因)에 의한다는 것은 불각의 뜻이기 때문이요, 연(緣)에 의한다는 것은 잘못 경계를 짓는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다.

(q3.4.2.2) 이 두 가지[麤와 細] 생멸이 무명의 혼습에 의하여 있는 것이니, 이른바 인(因)에 의하며 연(緣)에 의하는 것이다. 인에 의한다는 것은 불각의 뜻이기 때문이고, 연에 의한다는 것은 잘못 경계를 짓는 뜻

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이 멸한다면 연이 멸하는 것이니, 인이 멸하기 때문에 불상응심(不相應心)이 멸하고 연이 멸하기 때문에 상응심(相應心)이 멸하는 것이다.

(q3.4.2.3) 묻기를, “만약 마음이 멸한다면 어떻게 상속하며, 만약 상속한다면 어떻게 마침내 멸해 버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답하기를, “멸한다는 것은 오직 심상(心相)만 멸하는 것이요 심체(心體)가 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바람이 바닷물에 의해서 동상(動相)을 만드는 것이니, 만약 바닷물이 없어지면 풍상(風相)이 단절되어 의지할 바가 없지마는 바닷물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풍상이 상속하는 것이며, 오직 바람이 멸하기 때문에 동상(動相)이 따라서 멸하지만 바닷물이 멸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무명도 또한 그러하여 심체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니, 만약 심체가 멸하면 중생이 단절되어 의지할 바가 없지만 심체가 멸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상속하는 것이며, 오직 치(癡, 無明)가 멸하기 때문에 심상이 따라서 멸하지만 심지(心智)가 멸하는 것은 아니다.”

3.5 생멸문의 진여 자체(自體)·상(相)·용(用)

(e3.5.1) 서두의 ‘대승’에 대한 풀이에서 ‘대(大)’를 체대(體大), 상대(相大), 용대(用大)로 전개하고, 체대를 진여문에, 그리고 상대와 용대를 생멸문에 배대하였다. 그러므로 이하는 생멸문 내에서의 자체, 상, 용에 대한 논의이다.

3.5.1 상대(相大)

(e3.5.1.1) “진여의 자체상(自體相)이란 일체의 범부, 성문, 연각, 보살, 제불에게 증감됨이 없으며 앞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뒤에서 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필경에 늘 변함이 없다”고 한 것은 체대를 해석한 것으로서 서두에서 “첫째는 체의 큼이니, 일체법이 진여로서 평등하여 증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하 논문은 상대(相大)의 뜻을 풀이한 것으로 서두에서 “둘째는 상의 큼이니, 여래장에 무루의

성공덕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같다.

(q3.5.1.2) 진여의 자체상(自體相)이란 일체의 범부, 성문, 연각, 보살, 제불에게 증감됨이 없으며 앞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뒤에서 멀하는 것도 아니어서, 필경에 늘 변함이 없어서 본래부터 성품이 스스로 일체의 공덕을 가득 채운 것이다. 이른바 자체에 대지혜광명(大智慧光明)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법계를 두루 비치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진실하게 아는 뜻이 있기 때문이며,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상(常)·락(樂)·아(我)·정(淨)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청량하고 불변하고 자재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향하의 모래보다 많은 불리(不離)·부단(不斷)·불이(不異)·부사의(不思議)한 불법을 구축하고 내지 만족하여 부족한 바가 없는 뜻이기 때문에 여래장(如來藏)이라 하며 또한 여래법신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q3.5.1.3) 묻기를, “위에서 진여는 그 체가 평등하여 일체의 상을 여의었다고 말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진여의 체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고 말하는가?” 답하기를, “실로 이러한 모든 공덕의 뜻이 있으나 차별의 상이 없어서 똑같은 일미(一味)이며, 오직 하나의 진여이다. 이 뜻이 무엇인가? 무분별로 분별상을 여의니, 이러므로 둘이 없는 것이다. 또한 무슨 뜻으로 차별을 말할 수 있는가? 업식의 생멸상에 의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체법이 본래 오직 마음뿐인지라 실로 망념이 없지만, 망심이 있어서 깨닫지 못하여 망념을 일으켜 모든 경계를 보기 때문에 무명이라 하는 것이니, 심성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곧 대지혜광명의 뜻이기 때문이다.

(q3.5.1.4) 만약 마음이 견(見)을 일으키면 보지 못하는 상이 있는 것이니, 심성이 견을 여의면 바로 이것이 법계를 두루 비추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며, 자성이 없게 되며 상(常)도 아니고 낙(樂)도 아니며 아(我)도 아니고 정(淨)도 아니다. 이리하여 열뇌(熱惱)하며 쇠변(衰變)하면 자재하지 못하며 이에 향하의 모래들보다 많은 망염(妄染)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뜻에 대하기 때문에 심성이 움직임이 없으면 향하의 모래들보다 많은 모든 깨끗한 공덕상의 뜻을 가져 나타낸다. 만약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 다시 앞의 법의 생각할 만한 것을 본다면 모자라는 바가 있을 터이지만, 이러한 정법의 무량한 공덕은 바로 일심(一心)이며, 다시 생각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니, 법신·여래장이라 하는 것이다.”

3.5.2 용대(用大)

(q3.5.2.1) 또한 진여의 용(用)이란 이른바 모든 부처와 여래가 본래 인지(因地)에서 대자비를 일으켜 모든 바라밀을 닦아서 중생을 섭화(攝化)하며, 크나큰 서원을 세워 일체의 중생계를 모두 도탈(度脫)시키고자 하여 겁(劫)의 수를 한정하지 않고 미래에까지 다하는 것이니 모든 중생을 돌보기를 자기 몸과 같이하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중생상(衆生相)을 취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뜻에 의해서인가? 일체 중생과 및 자기의 몸이 진여로서 평등하여 다름이 없는 것인 줄 여실히 앎을 말하기 때문이다.

(q3.5.2.2) 이와 같은 대방편지(大方便地)가 있기 때문에 무명을 제멸하고 본래의 법신을 보아서 자연히 부사의업의 여러 가지 작용을 갖게 되는 것이니, 곧 진여와 똑같이 모든 곳에 두루하게 되며 또한 그러면서도 연을 만한 작용의 모양도 없다. 왜 그런가? 말하자면 모든 부처와 여래는 오직 법신(法身)·지상(智相)의 신(身)이며, 제일의제(第一義諦)로서 세제(世諦)의 경계가 없는 것이어서 시작(施作)을 떠난 것이니, 다만 중생의 견문에 따라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용(用)이라 말하는 것이다.

3.5.2.1 응신(應身)

(e3.5.2.1.1) 분별사식이란 범부와 이승(二乘)이 유식(唯識)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바깥의 경계가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불신(佛身)을 보고도 의식을 쫓아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전식(轉識)에 의해 색과 형상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줄로 아는 것이다.

(q3.5.2.1.2) 이 용(用)에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분별사식(分別事識)에 의한 것으로 범부와 이승(二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응신(應身)이라 이름하니, 이는 전식의 나타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온 것이라 보고 색의 분제[色分齊]를 취하여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5.2.2 보신(報身)

(e3.5.2.2.1) ‘업식에 의한다’ 고 한 것은 십해(十解) 이상의 보살은 유심(唯心)의 이치를 알아 바깥 경계가 없음을 잘 알아서 업식의 뜻을 따라 불신을 보기 때문이다. 이 보살은 그 분체가 곧 분체가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장애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모두 육도(六度)의 심행(心行)의 훈습과 진여의 부사의熏(不思議熏)으로 말미암아 성취한 것이므로 보신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q3.5.2.2.2) 둘째는 업식에 의한 것이니, 이는 모든 보살이 초발의(初發意)로부터 보살구경지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본 것을 보신(報身)이라 함을 이르는 것이다.

3.5.2.3 응신과 보신의 구분

(q3.5.2.3.1) 그 몸에 무량한 색(色)이 있고 색에 무량한 상(相)이 있고 상에 무량한 호(好)가 있으며, 머무는 의과(依果)도 무량한 여러 가지 장엄이 있어서 곳에 따라 나타냄이 곧 가이없고 궁진(窮盡)할 수 없어 분제상(分齊相)을 여의었지만 그 응하는 바에 따라서 항상 머물러 있어서 훼손되지 않고 잃지도 않는다.

(q3.5.2.3.2) 이러한 공덕은 모두 모든 바라밀 등 무루의 행熏(行熏) 및 부사의熏(不思議熏)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니, 이러한 한량없는 낙상(樂相)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보신(報身)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범부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추색(麤色)이니 육도(六道)에 따라서 각각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이류(異類)이며, 낙상(樂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신(應身)이라 말한다.

3.5.2.4 진여대용(眞如代用)

(q3.5.2.4.1) 다음, 초발의보살 등이 보는 것은 진여법을 깊이 믿기 때문에 적은 부분으로나마 보신을 보아서 저 보신의 색상(色相)과 장엄 등의 일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분체를 떠났으며 오직 마음에 의하여 나타날 뿐 진여를 떠나지 않은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살은 아직 스스로를 분별하고 있으니, 이는 아직 법신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심(淨心)을 얻으면 보는 바가 미묘하여 그 작용이 점점 수승하며 이리하여 보살지진(菩薩地盡)에 이르러 보신(報身)을 보는 일이 구경(究竟)하게 되거니와, 만약 업식을 여의면 보는 상[見相]이 없어지는 것이니, 모든 부처의 법신은 피차의 색상(色相)을 서로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q3.5.2.4.2) 묻기를, “만약 모든 부처의 법신이 색상을 여의었다면 어떻게 색상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답하기를, “곧 이 법신은 색의 체(體)이기 때문에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본래부터 색(色)과 심(心)은 둘이 아닌 것이니, 왜냐하면 색의 본성은 곧 지(智)인 까닭에 색의 체에 형체가 없는 것을 지신(智身)이라 하며, 지성(智性)은 곧 색인 까닭에 법신이 모든 곳에 두루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타낸 색이 분체가 없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시방세계에 무량한 보살과 무량한 보신과 무량한 장엄을 나타냄에 각각 차별이 되지만 모두 분체가 없어서 서로 방해되지 아니한다. 이는 심식(心識)의 분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진여의 자재한 용(用)의 뜻이기 때문이다.”

3.6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e3.6.1) 오음의 색과 심[受·想·行·識]을 추구한다는 것은 색을 부수어 극미에 이르러도 색[의 본질]을 얻을 수 없고, 마음 밖에는 생각할 만한 상(相)이 없기 때문에 육진이 필경에는 무념(無念)이라 하였다. ‘마음은 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동념(動念)을 추구한다면 이미 없어졌거나 아직 생기지 않았고, 중간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남이 없으니 그러므로 심성이 실로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수순한다는 것은 방편관(方便觀)이고 진여문에 들어가는 것

은 정관(正觀)이다.

(q3.6.2) 다음은 생멸문으로부터 곧 진여문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른바 오음(五陰)의 색(色)과 심(心)을 추구해 보건대, 육진경계(六塵境界)가 필경 생각할 만한 모양이 없으며, 또한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서 시방으로 찾아보아도 끝내 얻을 수가 없으니, 마치 사람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동쪽을 서쪽이라고 하지만 방향 자체는 실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중생도 그러하여 무명으로 혼미하기 때문에 마음을 망념이라 하지만, 마음은 실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만약 관찰하여 마음에 망념이 없는 줄 알면 곧 수순(隨順)하게 되어 진여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4. 각(覺)

4.1 각의 의미

4.1.1 이념(離念)

(e4.1.1.1) 각(覺, bodhi)은 마음에 온갖 번뇌 망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심성(心性)이 불각상(不覺相)을 여윈 것을 가리킨다. 번뇌는 객진번뇌(客塵煩惱)이니 마음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다.

(q4.1.1.2) 각(覺)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심체(心體)가 망념을 여윈 것을 말함이니 [...]

4.1.2 법계일상(法界一相)

(e4.1.2.1) 각(覺)을 허공에 비유한 것은 대상화하여 규정할 수 없고, 지혜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추어 평등함을 나타낸 것이다. 법계일상이란

이 평등성과 부분별지를 가리킨 것이다.

(q4.1.2.2) 망념을 여원 상(相)이란 허공계와 같아서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어 법계일상(法界一相)이며 [...]

4.1.3 법신(法身)

(e4.1.3.1) 법신(法身)이란 보신(報身), 화신(化身)과 함께 부처의 삼신(三身)의 하나. 진리, 혹은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법계 자체를 가리킨다. 법신은 흔히 비로자나불과 대일여래로 상징된다. 이러한 법신의 의미는 맥락과 관점에 따라 부처의 가르침과 능력 및 지혜를 가리키고, 중생이 갖추고 있는 청정한 본성 등으로 확장된다.

(q4.1.3.2) [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래의 평등한 법신이니 이 법신에 의하여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4.1.4 본각(本覺)·시각(始覺)·불각(不覺)

(e4.1.4.1) 시각이란 심체가 무명의 연(緣)을 따라 움직여 망념[不覺]을 일으키지만, 본각의 훈습의 힘에 의하여 차츰 각의 작용이 있으며 구경(究竟)에 이르러 다시 본각과 같아지는 것이니, 이를 시각이라 한다. 시각과 본각은 서로 의존한다. 이미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면 둘 다 자성(自性)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의존해서 성립함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각(覺)이 없는 것은 아니다.

(e4.1.4.2) 따라서 각(覺)이라고는 하지만 자성으로서의 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불각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근본불각(根本不覺)과 지말불각(枝末不覺)이다. 전자는 알라야식 내의 근본무명을 불각이라 이름하는 것이며, 후자는 무명에서 일어난 일체의 염법(染法)을 모두 불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q4.1.4.3) 본각의 뜻이란 시각(始覺)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시각이란 바로 본각과 같기 때문이며, 시각의 뜻은 본각에 의하기 때문에 불각(不覺)이 있으며 불각에 의하므로 시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4.2 본각(本覺)

4.2.1 본각의 양면 : 성정(性淨)본각과 수염(隨染)본각

(e4.2.1.1) 성정본각은 진여문에 있는 자성청정한 본각을 말하며, 수염본각은 생멸문에서 본각을 여의지 않으나 염심(染心)을 따라 분별하는 각성을 가리킨다. 전자는 각성을 회복하는 환멸문(還滅門)이요, 후자는 각성으로부터 전개된 유전문(流轉門)이다.

4.2.2 성정(性淨)본각 : 환멸문(還滅門)

4.2.2.1 성정본각의 사체상(四體相)

(e4.2.2.1.1) ‘허공과 같다’ 고 한 것은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고, ‘마치 맑은 거울과 같다’ 는 것은 먼지를 닦아 형상을 비추기 때문이다. 각체상이란 성정본각의 체상(體相)을 말한다. 아래의 네 가지 상 가운데 (1) 여실공경과 (3) 법출리경은 얼룩을 없앤다는 의미의 맑은 거울의 비유이고, (2) 인훈습경과 (4) 연훈습경은 형상을 비추어 나타낸다는 의미의 맑은 거울의 비유이다. 또한 (1)과 (2)는 인(因)을, (3)과 (4)는 과(果)를 나타낸다.

(q4.2.2.1.2) 각체상(覺體相)이란 것은 네 가지의 큰 뜻이 있어서 허공과 같으며, 이는 마치 맑은 거울과도 같다.

4.2.2.1.1 여실공경(如實空鏡)

(e4.2.2.1.1.1) 원효는 여실공경과 인훈습경을 해석하면서 열반경을 인용한다: “불성이라는 것은 제일의공(第一義空)이며, 제일의공을 지혜라고 이른다. [제일의공의] 지혜는 공과 불공을 함께 [同時에] 보고, 공[偏空]은 공과 불공을 동시에 보지 않는다.” ‘마음의 경계상을 여의었다’ 는 것은 인용한 열반경에서 말한 바 제일의공을 나타낸 것이고, ‘각조의 뜻이 아니라’ 는 것은 공과 불공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라 하였다. (AMFC 182)

(e4.2.2.1.1.2) 공과 불공을 동시에 본다는 것은 제일의공이 공성(空性)과 가명(假名)[혹은 假有]을 동시에 수용하고[雙照] 동시에 배척하는[雙遮] 중도실상(中道實相)이기 때문이고, 공[偏空]은 불공까지 함께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여실공은 마음이 대상을 집취(執取)하지 않으므로 대상화되는 사물이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비출 것이 없다고 풀 수도 있다.

(q4.2.2.1.1.3) 첫째는 여실공경이니, 모든 마음의 경계상을 멀리 여의어서 나타낼 만한 법이 없는지라 각조(覺照)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4.2.2.1.2 인훈습경(因薰習鏡)

(e4.2.2.1.2.1)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에서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난다’ 는 것을 공[일체의 생사]과 불공[대열반]을 함께 보는 제일의공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AMFC 182) 여실공과 여실불공은 상대적이고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훈습경[여실불공]은 세간의 일체의 사물이 그대로 지혜의 몸[智體]으로 드러나는 비추는 각의 경계를 비유하였다. 진여일심으로서의 법계는 각성(覺性)에 본래 구축되어 상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出入)과 생멸이 없다.

(q4.2.2.1.2.2) 둘째는 인훈습경이니, 여실불공을 말한다.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되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잃

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서 일심에 항상 머무르니, 이는 일체법이 곧 진 실성이기 때문이며, 또 일체의 염법이 더럽힐 수 없으니 지체(智體)는 움 직이지 아니하여 무루(無漏)를 구축하여서 중생을 훈습하기 때문이다.

4.2.2.1.3 법출리경(法出離鏡)

(e4.2.2.1.3.1) 『대승기신론소』에서는 이 논문을 “인훈습경이 번뇌에 서 벗어났을 때 법신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해석한다.(AMFC 183)

(q4.2.2.1.3.2) 세 번째는 법출리경이니, 불공법이 번뇌애와 지애를 벗 어나고 화합상을 여의어서 깨끗하고 맑고 밝게 되기 때문이다.

4.2.2.1.4 연훈습경(緣薰習鏡)

(e4.2.2.1.4.1) 『대승기신론소』에서는 “저 본각이 나타날 때에 중생 의 근기를 똑같이 비추어 온갖 교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었 다.(AMFC 183) 인훈습이 각의 성품[覺性]이 중생의 마음을 훈습해서 선 근을 기르게 하여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면, 연훈습은 대원경지 (大圓鏡智)를 일으켜 증상연(增上緣)으로서 중생을 훈습하는 것이다.

(q4.2.2.1.4.2) 네 번째는 연훈습경이니, 법출리에 의하기 때문에 중생 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서 선근을 닦도록 하여 [중생의] 생각에 따라 나타 내기 때문이다.

4.2.3 수염(隨染)본각: 유전문(流轉門)

4.2.3.1 수염본각의 두 모습[二相]

(e4.2.3.1.1) 본각이 물든[染] 마음을 따라[隨] 전개되는 것 또한 분 별된 상(相)에 불과한 것으로 실체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염본각 또 한 성정본각과 불일불이(不一不異)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원효는 『대승

기신론소』에서 지정상은 수염본각의 상(相)이며, 부사의업상은 수염본각이 깨끗한 상태[淨]에 돌아왔을 때의 업의 작용[業用]을 밝힌 것이라 하였다. (AMFC 175)

(q4.2.3.1.2) 본각이 염(染)을 따라 분별하여 두 가지의 상(相)을 내지만, 저 본각과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아니하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지정상(智淨相)이고, 둘째는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이다.

4.2.3.1.1 지정상(智淨相)

(e4.2.3.1.1.1) 첫 단락은 지정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인 법(法)이고, 둘째 단락은 비유인 유(喻)이며, 셋째 단락은 앞의 두 단락을 총괄하는 결론격인 함(合)으로서 『대승기신론』에서 흔히 보는 기술 방식이다. 여기서 법력이라 하는 것은 진여법의 훈습하는 힘을 가리킨다. 이 훈습의 힘에 의해 실다운 수행을 함으로써 진심(眞心)과 망심(妄心)의 화합체인 알라야식 내의 생멸상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신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 때 상속심 가운데 업상(業相)과 전상(轉相)을 없애어 본각의 근원으로 돌아가므로 지혜가 맑아진다고 하였다. 물론 이 때 상속심의 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相)을 없애는 것이다.

(e4.2.3.1.1.2) 모든 업식 전식 등 모든 심식의 상은 무명의 망풍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서 불각이지만 이 불각의 상 또한 [수염]본각과 불일불이의 관계에 있다. 같지 않으므로[不一] 소멸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으므로[不異]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q4.2.3.1.1.3) 지정상이 법력의 훈습에 의하여 여실히 수행하여 방편을 만족하기 때문에 화합식상(和合識相)을 깨뜨리고 상속심상(相續心相)을 없애어 법신을 현현(顯現)하여 지혜가 맑고 깨끗하게 됨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뜻이 무엇인가? 모든 심식(心識)의 상이 다 무명이니, 무명의 상이 본각의 성질을 여의지 않아서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파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q4.2.3.1.1.4) 이것은 마치 큰 바다의 물이 바람에 의하여 물결이 움

직일 때, 물의 모양과 바람의 모양이 서로 떨어지지 않지만,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닌지라 만일 바람이 그쳐서 없어진다면 움직이는 모양[물결]은 곧 없어지나 물의 젖는 성질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q4.2.3.1.1.5) 이와 같이 중생의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도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움직일 때 마음과 무명이 모두 형상이 없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지만,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닌지라 만일 무명이 없어진다면 상속하는 것이 곧 없어지나 지혜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4.1.3.1.2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

(e4.1.3.1.2.1) 모든 뛰어난 경계와 무량한 공덕의 상이라 함은 수염 본각의 마음이 맑아져서 응신과 화신을 나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들은 중생의 업의 작용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므로 중생이 존재하는 한 끊임이 없는 것이다.

(q4.1.3.1.2.2) 부사의업상이란 것은 지혜가 맑아짐에 의하여 모든 뛰어난 경계를 짓는 것이니 이른바 무량한 공덕의 상이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연히 상응하여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4.3 시각의 사상(四相)

(e4.3.1) 시각(始覺)의 네 가지 모습[四相]이란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을 말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모습은 전후 순서가 있는 것인가, 혹은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대승기신론』은 예의 물과 파도의 비유로서 답한다. 즉, 일심에는 본래 네 가지 구분이 없지만 무명의 혼습에 의하여 네 가지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네 가지 모습이란 헛된 분별에 불과할 것이요, 무명을 벗지 못한 수행의 단계에서는 선후(先後)와 심천(深淺)의 차별이 없지 않은 것이다.

4.3.1 범부각(凡夫覺)

(e4.3.1.1) 여기서 말하는 범부는 보살 수행계위 52위 중 제1위에서 제10위까지 십신(十信)의 지위에 있는 이를 가리킨다. 십신의 지위 이전에는 악업을 일으켰으나 이제 십신에 들어서는 그것이 그릇됨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았으므로 다음의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릇된 생각은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생멸심에 머물러 불생불멸의 불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한 것이다. 혹은 무명의 공성을 투철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각이라고도 한다.

(e4.3.1.2) 범부각의 상태에서는 생각의 멸상(滅相)을 안다고 하는데, 이 뜻은 중생의 분별심은 끊임이 없지만, 앞의 생각이 멸하고 또 다른 생각으로 업을 짓는 것을 보고, 생각의 사라짐을 알아서 그릇된 생각을 끊어 뒤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음을 말한다.

(e4.3.1.3) 범부 정도의 사람은 먼저의 생각에 악이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치게 하여 그 악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이는 또한 각(覺)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바로 불각이기 때문이다.

4.3.2 상사각(相似覺)

(e4.3.2.1) ‘이승의 관지와 초발의보살’은 소위 삼현(三賢)으로서 성문(聲聞), 연각(緣覺), 처음 발심한 보살을 가리킨다. 보살 52계위 중 제11위에서 제20위까지 십주(十住)의 지위에 머무는 이들이다. ‘생각의 이상(異相)을 깨달았다’는 것은 삼승인(三乘人)[성문, 연각, 초발의보살]이 무아(無我)를 분명히 알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소상(所相)인 심

체가 무명에 잠겨 이상(異相)을 꿈꾸어서 모든 번뇌를 일으키다가 이제 점차 지혜와 상응하여 이상의 꿈으로부터 조금 깨닫게 됨을 밝히고자 한 것”(AMFC 159)이다. ‘생각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이상의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여섯 가지 이상(異相)[貪, 瞋, 痴, 慢, 疑, 見]이 사라진 것을 말한다.

(e4.3.2.2) 이승(二乘)의 관지(觀智)와 초발의보살(初發意菩薩) 등 정도의 사람은 생각의 이상(異相)을 깨달아 생각에 이상(異相)이 없으니, 이는 추분별집착상(麤分別執着相)을 버렸기 때문이며, 따라서 상사각(相似覺)이라 이른다.

4.3.3 수분각(隨分覺)

(e4.3.3.1) ‘법신보살 등’이란 보살 52위 중 제41위에서 제50위까지 초지(初地) 이상 십지(十地) 보살을 가리킨다. ‘생각의 주상(住相)을 깨달았다’는 것은 인공(人空)과 법공(法空)에 통달했음을 말한다. 또한 “심체가 주상(住相)의 꿈에 잠들어 있다가 무분별지(無分別智)와 상응하여 주상의 꿈에서 깨어남”(AMFC 160)을 가리키는 것이다. 분별추념상에서 거침[麤]은 상대적 개념이다. 즉 상사각의 이상(異相)의 미세념보다 미세하나 뒤의 생상(生相)의 미세념(微細念)보다는 거칠기 때문이다.

(q4.3.3.2) 법신보살(法身菩薩) 등 정도의 사람은 생각의 주상(住相)을 깨달아 생각에 주상이 없으니, 이는 분별추념상(分別麤念相)을 여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수분각(隨分覺)이라고 이른다.

4.3.4 구경각(究竟覺)

(e4.3.4.1) 마음이 세 가지 미세한 번뇌[三細]와 여섯 가지 거친 번뇌[六麤]에 가려지면 근원[心源]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번뇌의 사상[生住異

滅]을 차례로 거슬러 모두 소멸하면 마음의 근원에 도달하여 불성이 현현하게 되는데 이를 구경각이라 한다. 그러나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면 마음의 근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구경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4.3.4.2) ‘보살지가 다한 사람’이란 무구지(無垢地), 혹은 등각(等覺)보살을 말한다.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상을 깨닫는다’ 함은 무명에 의한 마음의 생상(生相)이 심체를 미혹하여 생각을 움직이게 하다가 마음의 움직임이 곧 고요함과 다르지 않음을 증득하여 아는 것을 뜻한다. ‘마음에 초상이 없다’는 것은 불각[무명]에 의해 일어나는 마음이 없다는 의미이다. 구경위에서는 무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므로 ‘심성을 보아 마음이 상주한다’고 하였다.

(q4.3.4.3) 심원(心源)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경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며, 심원(心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경각이 아닌 것이다.

(q4.3.2.4) 보살지(菩薩地)가 다한 정도의 사람은 방편을 만족시켜서 일념이 상응하고 마음의 처음 일어나는 상을 깨달아 마음에 초상(初相)이 없으니, 이는 미세념(微細念)을 멀리 여의었기 때문이며, 심성(心性)을 보게 되어 마음이 곧 상주하니, 이를 구경각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경에서 “만약 어떤 중생이 무념(無念)을 볼 수 있다면 곧 불지(佛智)에 향함이 된다”고 말하였다.

4.4 무념(無念)

(e4.4.1)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만한 초상이 없는 것’이란 한 것은 마음이 일어남을 아는 것하고 그 처음 일어나는 모습[初相]을 아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초상을 안다는 것은 처음 움직이는 마음[즉 動念]이 본래 고요함을 아는 것이므로 무념이라고 한 것이다.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한 생각에 얽매어 분별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

다. 매순간 일어나는 생각[망념]도 본래 고요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므로 실로 ‘일어나는 망념’ 역시 미망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없는 무명[無始無明]이라 한 것이다.

(e4.4.2) 망념이 사라져 무념의 상태가 되면, 일심의 심체가 무명에 의해 동요되어 사상의 차별이 일어난 것을 밝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망념이 없으면 심상의 생주이멸을 알고’ 또한 ‘무념과 같다’ 고 한 것이다. 또한 무명에 의해 생주이멸의 사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심체는 본래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본각과 시각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사상이 동시에 있어 자립함이 없다’ 는 것은 사상이 의미상으로는 선후가 있지만 본래 동시에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q4.4.3)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 만한 초상(初相)이 없는 것이며, 그런데도 초상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무념(無念)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일체 중생을 깨달았다고 이름하지 못하는 것은 본래부터 염념이 상속하여 아직 망념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니, 이를 무시무명(無始無明)이라 하는 것이다. 만약 망념이 없게 되면 심상(心相)의 생주이멸을 알게 되니 무념(無念)과 같아지기 때문이며 실로 시각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니, 왜냐 하면 사상(四相)이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으며 본래 평등하여 각(覺)과 같기 때문이다.

5. 불각[=무명]

5.1 근본불각

(e5.1.1) 방위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편의상 동과 서로 방위를 정하지만 실로 고정된 방위란 없는 것이다. 혹 동쪽을 향하려는 사람이 서쪽을 동쪽으로 잘못 알아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그가 찾는 동쪽이라는 것도 본래 정해진 방위가 아니라 임시로 시설된 것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방위에 대한 혼란은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

다. 즉, 바른 동쪽에 의존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으나 바른 동쪽을 버리면 그른 서쪽도 함께 없어지리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각은 각에 의해 생겼으나 각을 버리면 불각도 없고, 마찬가지로 불각이 없으면 각도 없다. 불각에 대해 진각을 말하지만 이 둘은 서로 상의상대(相依相對)하고 있어 자상(自相)이 없는 것이다.

(q5.1.2) 불각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진여법이 하나임을 여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망념이 있게 된 것을 이른 것이다. 그러나 망념은 자상(自相)이 없어서 본각을 여의지 않았으니,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이 방향에 의하기 때문에 혼미하게 되었으나, 만약 방향을 여윈다면 혼미함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각(覺)에 의하기 때문에 혼미하게 되었으나, 만약 각의 성질을 여윈다면 불각이 없을 것이며, 불각의 망상심이 있기 때문에 명의(名義)를 알아서 진각(眞覺)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만약 불각의 마음을 여윈다면 진각의 자상이라고 말한 만한 것도 없는 것이다.

5.2 지말불각

5.2.1 삼세(三細)

(e5.2.1.1) 지말불각의 세 가지 미세 번뇌[三細]는 알라야식에 속하고, 여섯 가지 거친 번뇌[六麤]는 나머지 칠식에 속한다.(AMFA 189) 이 지엽적인 불각[지말불각]은 모두 근본적인 불각[근본불각]이 일으킨 것이나 이 둘은 서로 상응하여 떨어져 있지 않다.

(q5.2.1.2) 다시 불각에 의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상이 생겨서 저 불각과 더불어 상응하여 여의지 않으니 [...]

5.2.1.1 무명업상(無明業相)

(e5.2.1.1.1) 본각의 부사의업(不思議業)과 구분해서 무명업(無明業)이라 하였다. 최초로 움직이는 한 생각에 의해 불각이 있으므로 이 움직임을 업상이라고 한다. 반대로 깨달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중생의 생사윤회가 실로 이 한 생각의 움직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생각이 움직이지 않음은 곧 무념(無念)이요, 이것이 곧 깨달음이다.

(q5.2.1.1.2) 첫째는 무명업상이니, 불각의 의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業)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깨달으면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이면 고통이 있게 되니, 결과가 원인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이다.

5.2.1.2 능견상(能見相)

(e5.2.1.2.1) 능견이란 인식주체를 가리킨다. 능견상은 앞에서 말한 바 전상(轉相)에 상응한다. 진여의 지혜는 본래 주객의 구분이 없지만, 무명에 미혹되어 진여의 지혜가 허망 분별이 되어 차별 경계를 보는 것이 전상이다. 무명업상에 의해 마음이 움직여 능견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q5.2.1.2.2) 두 번째는 능견상이니, 움직임에 의하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니, 움직이지 않는다면 볼 것이 없을 것이다.

5.2.1.3 경계상(境界相)

(e5.2.1.3.1) 경계상이란 인식대상을 가리킨다. 앞의 현상(現相)에 해당한다. 무상(無相)의 일심이 한 생각이 일어남에 따라 흔들려서 주객의 경계가 성립된다. 능견상[주체]과 경계상[객체]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는가? 여기서는 능견상에 의해 경계상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세가지 미세 번뇌[三細, 무명업상과 능견상과 경계상]는 동시에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선후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능견상과 경계상은 둘 중의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하나도 사라진다.

(q5.2.1.3.2) 세 번째는 경계상이니, 능견에 의하기 때문에 경계가 거
쳐져 나타나는 것이니 견(見)을 여윈다면 경계가 없어질 것이다.

5.2.2 육추(六麤)

(e5.2.2.1) 육추가 ‘경계의 연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은 앞
의 현식[즉 경계상]이 나타낸 경계에 의해 칠식 가운데에서 여섯 가지
거친 번뇌를 일으킴을 말한 것이다. “육추 가운데 첫 번째 지상(智相)
은 제칠식이고, 다음의 네 가지 상[상속상, 집취상, 계명자상, 기업상]
은 생기식(生起識)에 있으며, 마지막 업계고상은 앞의 다섯 가지 상이
일으킨 과보이다.” (AMFC 197)

(q5.2.2.2) 경계의 연(緣)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섯 가지의 상을 내는
것이니,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5.2.2.1 지상(智相)

(e5.2.2.1.1) 지상이란 분별심을 가리킨다. 모든 경계가 오직 마음의
투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착하여 호오(好惡)와 애증(愛憎)의 차별
심을 일으킨다.

(q5.2.2.1.2) 첫째는 지상이니, 경계에 의하여 마음이 일어나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음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5.2.2.2 상속상(持續相)

(e5.2.2.2.1) 경계를 호오(好惡)를 분별하여 마음에 드는 것을 즐기고
싫은 것을 괴로워한다. 이 두 생각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생사가 반복되
므로 상속상이라 하였다. “상속상이라는 것은 식온(識蘊)이다. [...] 애

취(愛取)를 일으켜 과거의 모든 행위를 인지(引持)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또한 윤생(潤生)하여 미래의 과보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기 때문이다.” (AMFC 206)

(q5.2.2.2.2) 둘째는 상속상이니, 지상에 의하기 때문에 그 고락을 내어서 각심(覺心)으로 망념을 일으켜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5.2.2.3 집취상(執取相)

(e5.2.2.3.1) “집취상은 수온(受蘊)이니 식온(識蘊)[즉 상속상]에 의해 싫고 좋음을 분별하여 고락을 받아들이고,” (AMFC 207) 여기에 깊이 집착한다.

(q5.2.2.3.2) 셋째는 집취상이니 상속에 의하여 경계를 반연하여 생각해서 고락에 주지(住持)하여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5.2.2.4 계명자상(計名字相) [=假名言相]

(e5.2.2.4.1) “계명자상은 상온(想蘊)이니 앞의 수온(受蘊)에 의해 좋고 싫음의 명언의 상을 분별하는 것이니” (AMFC 207) 다시 말해서 허망한 경계에 반연해서 이름뿐인 언어 문자를 실제로 그렇다고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q5.2.2.4.2) 넷째는 계명자상이니, 잘못된 집착에 의하여 거짓된 명칭과 언설의 상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5.2.2.5 기업상(起業相)

(e5.2.2.5.1) 기호에 불과한 언어 문자에 집착하여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여러 가지 업을 지으므로 기업상이라 하였다. “기업상은 행온(行蘊)이니, 상온이 취한 명상(名相)에 의해 사수(思數)를 일으켜 선악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AMFC 207)

(q5.2.2.5.2) 다섯 번째는 기업상이니, 명자(名字)에 의하여 이름을 따

라가면서 집착하여 여러 가지의 행동을 짓기 때문이다.

5.2.2.6 업계고상(業繫苦相)

(e5.2.2.6.1) 스스로 지은 선악의 업의 의해 고락의 과보를 받아 삼계를 윤회하며 고를 받으므로 업계고라 하였다. “앞의 행온이 만든 업에 의하여 삼계와 육취의 고통의 과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AMFC 208)

(q5.2.2.6.2) 여섯 번째는 업계고상이니, 업에 의하여 과보를 받아서 자재(自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3 각과 불각의 관계

(q5.3.2) 각과 불각이 두 가지의 상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동상(同相)이고, 둘째는 이상(異相)이다.

5.3.1 동상(同相)

(e5.3.1.1) 동상이란 모든 형상이 다른 질그릇이 같은 흙으로 빚어졌듯이 각과 불각이 다르다 하나 모두 하나의 진여의 성품이라는 것이다. 본각은 청정하고 불각[무명]은 오염되어 있으나 이 둘은 모두 진여가 인연에 따라 성상을 달리한 것이다. 따라서 참과 거짓, 청정과 염오, 생사와 열반이 모두 환상이요 허망한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모습[同相]인 것이다.

(e5.3.1.2) 마지막 ‘색상을 불만한 것이 없으되 [...]’ 이하는 보신과 화신 등 부처의 형상과 색은 중생의 오염된 업에 따라 망심에 나타나 는 것이지 본각의 불공성(不空性)에 있는 것이 아니니 본각의 지혜는 형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지색불공(智色不空)은 본각(本覺)의 성덕(性德)을 말한다.

(q5.3.1.3) 동상이라고 말한 것은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의 와기(瓦器)가 모두 똑같은 미진(微塵)의 성상(性相)인 것처럼 무루(無漏)와 무명(無明)의 여러 가지 업환(業幻)도 다 똑같은 진여의 성상인 것이다. 이러므로 경 가운데 이 진여의 뜻에 의하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은 본래 열반, 보리의 법에 상주하여 들어가 있는 것이니, 이는 닦을 수 있는 상이 아니며 지을 수 있는 상이 아닌지라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색상(色相)을 볼 만한 것이 없으며 색상을 봄이 있는 것은, 오직 염법의 업환에 따라 지은 것이지 지색불공(智色不空)의 성질은 아니니 지상(智相)은 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5.3.2 이상(異相)

(e5.3.2.1) 각과 불각이 다른 것[異相]은 질그릇의 모양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 여러 질그릇은 모두 진흙으로 빚어졌지만 각각 다른 인연에 따라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본각과 불각, 청정과 염오, 생사와 열반은 모두 진여의 법성이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으나 오염된 허망한 인연에 따라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직 마음이 움직이면 온갖 염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온갖 청정한 공덕이 드러남과 같다.

(e5.3.2.2) 수염환차별이란 무루법이 염법에 따라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며, 성염환차별이란 무명법이 그 자체로 차별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무루는 저 염(染)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이지, 자성(自性)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AMFA 212)

(q5.3.2.3) 이상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 가지의 와기가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이 수염환(隨染幻)의 차별이며 성염환(性染幻)의 차별이기 때문이다.

6. 훈습(薰習)

6.1 훈습의 의미 [염정(染淨)훈습]

(q6.1.1) 훈습의 뜻이란 세간의 의복이 실제로는 향기가 없지마는 만약 사람이 향으로 훈습하면 그 때문에 곧 향기가 있는 것과 같이, 이도 또한 이리하여 진여정법에는 실로 염(染)이 없건마는 다만 무명으로 훈습하기 때문에 곧 염상(染相)이 있으며, 무명염법에는 실로 정업(淨業)이 없으나 다만 진여로 훈습하기 때문에 정용(淨用)이 있는 것이다.

6.2 훈습의 네 요건

(q6.2.1) 다시 네 가지 법의 훈습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염법과 정법이 일어나 단절하지 않는 것이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정법(淨法)이니 진여라 이름하며, 둘째는 일체의 염인(染因)이니 무명이라 이름하며, 셋째는 망심(妄心)이니 업식(業識)이라 이름하며, 넷째는 망경계(妄境界)니 이른바 육진(六塵)이다.

6.3 염(染)훈습

6.3.1 염훈습의 구조

(e6.3.1.1) 염법이 상속되는 것은 진여가 인(因)이 되고 무명이 연(緣)이 되어 진여를 훈습하기 때문이다. 이 무명이 진여를 훈습하여 진여로부터 알라야식이 있게 되고 알라야식이 다시 무명을 훈습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무명이 강성해져서 다시 진여를 훈습하여 업식이 성립된다. 이 무명은 업식에 의한 것이므로 업식은 다시 무명을 훈습하여 미혹이

깊어진다. 이렇게 정법과 망법이 서로 혼습하면서 무시무종의 순환고리를 이루는 것이 염혼습의 구조이다.

(e6.3.1.2) 무명은 진여법이 평등함을 보지 못하고 ‘홀연히’ 망상을 일으키므로 무명이라 이름한다. 능가경에서 “무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에 의지해 일어난다” 고 하였으니 무명이란 한 생각의 혼습으로 인해 본래의 밝음이 가려진 것이다. 밝음을 잃으므로 진여가 변해 업식이 된다. 그래서 허망한 마음[妄心]이라 하였다. 이 ‘홀연히’ 일어나는 한 생각[망심]은 아주 미세하여 오직 부처만이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q6.3.1.3) 어떻게 혼습하여 염법을 일으켜 단절되지 않는가? 이른바 진여법에 의하기 때문에 무명이 있고, 무명염법의 인(因)이 있기 때문에 곧 진여를 혼습하며, 혼습하기 때문에 곧 망심이 있게 된다. 망심이 있어서 곧 무명을 혼습하여 진여법을 요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각하여 망념이 일어나 망경계를 나타낸다. 망경계의 염법의 연(緣)이 있기 때문에 곧 망심을 혼습하여 그로 하여금 염착(染着)케 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지어서 일체의 신심(身心) 등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6.3.2 무명(無明)혼습

6.3.2.1 근본(根本)혼습

(e6.3.2.1.1) 근본혼습이란 근본무명이 진여를 혼습하여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곧 업식의 일어남이다. 따라서 근본혼습이 ‘업식을 성립시킨다’ 함은 무명이 진여에 의해 생겨나 세 가지 미세한 번뇌[三細]와 여섯 가지 거친 번뇌[六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한 것이다.

(q6.3.2.1.2) 첫째는 근본혼습이니, 업식을 성취할 수 있는 뜻이기 때문이요 [...]

6.3.2.2 소기견애(所起見愛)훈습

(e6.3.2.2.1) 소기견애훈습이란 미혹된 사건(邪見)과 애착을 일으키는 훈습을 말한다. 분별사식이라 함은 제육식으로서 분별식이라고도 한다.

(q6.3.2.2.2) 둘째는 소기견애훈습이니, 분별사식을 성취할 수 있기 때
문이다.

6.3.3 망심(妄心)훈습

6.3.3.1 업식근본(業識根本)훈습

(e6.3.3.1.1) 업식이 근본무명을 훈습하여 망념에 의해 형상에 집착함
으로써 성문, 연각, 보살이 변역생사(變易生死)의 고통을 받는다.

(e6.3.3.1.2) 생사윤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분단생사(分段
生死)는 중생이 일정한 수명[分]과 형상[段]을 취해서 욕도를 윤회하는
생사이고, 변역생사(變易生死)는 보살 등이 이전의 거친 몸 대신 미세한
몸으로 바꾸어[變易] 삼계 밖에서 성불할 때까지 받는 생사를 가리킨다.
분단생사의 고통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미세한 번뇌로 인한 고통이 있다.

(q6.3.3.1.3) 첫째는 업식근본훈습이니, 아라한(阿羅漢)과 벽지불(辟支
佛)과 일체 보살의 생멸고(生滅苦)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요 [...]

6.3.3.2 증장분별사식(增長分別事識)훈습

(e6.3.3.2.1) 분별사식이 증장되어 견애(見愛) 무명을 훈습함으로써
분별과 집착으로 인해 업을 짓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업계고는 범
부들이 받는 분단생사의 고통을 가리킨다.

(q6.3.3.2.2) 둘째는 증장분별사식훈습이니, 범부의 업계고(業繫苦)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3.4 망경계(妄境界)훈습

6.3.4.1 증장념(增長念)훈습

(e6.3.4.1.1) 업식(業識) 무명이 경계의 훈습력으로 인해 분별사식 가운데 법집분별념(法執分別念)이 증장되는 것을 말한다. 증장념훈습을 지상(智相)과 상속상(相續相)의 증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법집분별념이란 객관현상[法]을 실제로 알고 집착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6.3.4.2 증장취(增長取)훈습

(e6.3.4.2.1) 사취(四取)의 번뇌장(煩惱障)을 증장하는 것이다. 사취란 삼계 중생이 염오되어 있는 네 가지 번뇌로서 욕취(欲取), 견취(見取), 계금취(戒禁取), 아어취(我語取)를 가리킨다.

6.4 정(淨)훈습

6.4.1 정훈습의 구조

(e6.4.1.1) 정법 훈습은 반대로 진여가 무명을 훈습함으로써 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진여가 안으로부터 무명을 훈습하여 발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정한 업이 성립하는 것이 본래의 훈습[本熏]이

며, 이 청정한 인(因)이 다시 진여를 훈습하여 그 힘을 증장시키는 것을 새로운 훈습[新熏]이라고 한다.

(e6.4.1.2) 불교수행단계인 신해행증(信解行證) 가운데 번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해(解)이고, 이렇게 파악된 번뇌를 떠나는 법을 닦은 것이 올바른 수행인 행(行)이다. 뒷부분에서 인과 연이 멸한다는 것은 무명의 인과 경계의 연이 함께 소멸됨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업이란 부사의업(不思議業)으로서 진여본각에 갖추어져 있는 중생을 교화하고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작용을 말한다.

(q6.4.1.3) 어떻게 훈습하여 정법(淨法)을 일으켜 단절시키지 않는가? 이른바 진여법이 있기 때문이니, 이 진여가 무명을 훈습하는 것이며 훈습하는 인연의 힘에 의하여 곧 망심(妄心)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기를 좋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망심에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기 좋아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곧 진여를 훈습하는 것이다.

(q6.4.1.4)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믿어서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이는 것 일 뿐 눈앞의 경계가 본래 없음을 알아서 [번뇌를] 멀리 여의는 법을 닦게 된다. 눈앞의 경계가 없음을 여실히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순행(隨順行)을 일으켜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잘못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내지 오랫동안 훈습한 힘 때문에 무명이 곧 멸하게 된다.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없고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따라서 멸한다. 인과 연이 다 멸하기 때문에 심상(心相)이 다 없어지니, 이를 열반을 얻어 자연업(自然業)을 이룬다고 말한다.

6.4.2 진여(眞如)훈습

(e6.4.2.1) 진여가 무명을 안팎으로 훈습함에 있어서 체와 용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q6.4.2.2) 진여훈습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자체상훈습이며, 둘째는 용훈습이다.

6.4.2.1 자체상(自體相)훈습

(e6.4.2.1.1) 진여의 체는 무시이래로 중생에게 본래 갖춰진 무루의 법성을 가리키며, 공덕[相]이라는 것은 진여의 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루의 공덕상을 말한다. 부사의업[자연업]을 갖추었다는 것은 진여 자체와 공덕에 불가사의한 업의 작용이 있어서 밖으로는 모든 무정(無情)과 더불어 경계의 성품을 일으킨다. 이것을 법성, 혹은 진여 법성이라 한다.

(q6.4.2.1.2) 자체상훈습이란 무시(無始) 이래 무루법(無漏法)을 갖추고 부사의업(不思議業)을 갖추며 경계성(境界性)을 짓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뜻에 의하여 항상 훈습하여 훈습의 힘이 있기 때문에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하여 스스로 자기의 몸에 진여법이 있는 줄 믿어 발심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q6.4.2.1.3) 묻기를, “만일 이러한 뜻과 같다면 모든 중생에게 모두 진여가 있어서 똑같이 훈습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믿음이 있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도 하여 한없는 전후의 차별이 있는 것인가? 모두 동시에 스스로 진여법이 있음을 알아서 방편을 부지런히 닦아 똑같이 열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답하기를, “진여는 본래 하나이지만 무명은 한량없고 가이없어서 본래부터 자성(自性)이 차별되어 후박(厚薄)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항하(恒河)의 모래보다 많은 상번뇌(上煩惱)가 무명에 의하여 차별을 일으키며 아견애염번뇌(我見愛染煩惱)가 무명에 의하여 차별을 일으키니, 이와 같은 일체의 번뇌가 무명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어서 전후의 한량없는 차별이 있는 것이며, 오직 여래만이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q6.4.2.1.4) 또 모든 불법에 인(因)이 있고 연(緣)이 있는 것이니, 인연이 구족하여야 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나무 중의 화성(火性)이 불의 정인(正因)이지만 만약 사람이 알지 못하여 방편을 빌리지 못하면 스스로 나무를 태울 수 없는 것과 같이, 중생도 그러하여 정인(正因)의 훈습하는 힘이 있으나 만약 모든 부처, 보살, 선지식 등을 만나 그들로 하여금 연(緣)을 삼지 못한다면 스스로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q6.4.2.1.5) 만약 외연(外緣)의 힘이 있으나 안으로 인(因)의 정법(淨法)이 아직 훈습의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또한 구경에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인연이 구축한 이라면 이른바 스스로 훈습하는 힘이 있고 또 모든 부처, 보살 등의 자비와 원호(願護)함을 받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열반이 있음을 믿어 선근을 닦아 익히며, 선근을 닦는 일이 성숙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와 보살의 보여 주고 가르쳐 주어 중생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함을 만나 차츰 일을 이루어 나아가 열반의 도에 향할 수 있는 것이다.”

6.4.2.2 용(用)훈습

6.4.2.2.1 용훈습의 의미

(e6.4.2.2.1.1) 불보살이 법신을 증득하면 부사의업의 작용이 있어 중생의 마음에 따라 감응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비 원력으로 여러 몸을 나투어 발심해서 수행하는 중생을 도와주는 바깥 연[外緣]이 된다. 중생이 갖춘 본각의 심체가 곧 부처의 평등법신으로서 체도 같고 작용도 같다. 중생에게는 발심하는 마음이 작용하므로 여러 부처님이 성취시켜 주려는 그 마음의 작용에 감응하게 되는 것이다.

(e6.4.2.2.1.2) 차별과 평등을 말하는 것은 중생이 감응하는 근기와 발심의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분별사식으로 발심하는 중생에게는 갖가지 화신(化身)이 나타나므로 차별연이 되는 것이고, 업식을 좇아 발심하면 보신(報身)이 나타나므로 평등연이 되는 것이다.

(q6.4.2.2.1.3) 용훈습이란 곧 중생의 외연(外緣)의 힘이니, 이러한 외연에 한량없는 뜻이 있으나 대략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차별연(差別緣)이고 둘째는 평등연(平等緣)이다.

6.4.2.2.2 차별연(差別緣)

6.4.2.2.2.1 차별연의 의미

(e6.4.2.2.2.1.1) 차별연의 모습 가운데 다섯을 들었다. 수행인이 불보살을 보려하거나 그 덕을 생각하면, 혹은 자비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받들고, 동류로 이롭게 하고, 원수로 나타나 뜻을 꺾기도 하고, 사섭법으로 감싸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러 불보살이 중생이 바램을 성취하도록 외연을 짓는 것은 대자대비의 훈습력 때문이지 유심 분별로 짓는 것이 아니다. 사섭법이란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이다.

(q6.4.2.2.2.1.2) 차별연이란 이 사람이 모든 부처와 보살 등에 의하여 처음 발의(發意)하여 비로소 구도할 때로부터 부처가 되기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에서 혹은 부처를 보기도 하고 혹은 생각하기도 함에 있어, 어떤 경우는 권속(眷屬), 부모, 제친(諸親)이 되며, 어떤 경우는 급사(給使)가 되며, 어떤 경우는 지우(知友)가 되며, 어떤 경우는 원가(怨家)가 되며, 어떤 경우는 사섭(四攝)을 일으키며, 내지 일체의 짓는 한량없는 행위의 연(緣)이 되는 것이니 이는 대비(大悲)로 훈습하는 힘을 일으켜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증장케 하여 혹은 보거나 혹은 들어서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6.4.2.2.2.2 차별연의 종류

(e6.4.2.2.2.2.1) 감화에 있어서 연(緣)의 원근을 말하였다. 증장행연이란 믿음을 키우고 수행을 돕는 연이고, 수도연이란 도를 향하도록 돕는 연을 말한다.

(q6.4.2.2.2.2.2) 이 연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근연(近緣)이니 빨리 도탈(度脫)을 얻기 때문이고, 둘째는 원연(遠緣)이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도탈을 얻기 때문이다. 이 근연과 원연의 두 연을 분별하면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증장행연(增長行緣)이고, 둘째는 수도연(受道緣)이다.

6.4.2.2.3 평등연(平等緣)

(e6.4.2.2.3.1) 불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힘으로 끊임없이 훈습하는 것이다. 중생은 부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생각마다 훈습을 입어 한 순간도 떠나있지 않다. 따라서 중생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익힌 견문에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현보살의 현신과 관음보살의 감응이 평등연이다.

(q6.4.2.2.3.2) 평등연이란 일체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일체 중생을 도탈(度脫)시키고자 하여 자연히 이들을 훈습하여 항상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동체지력(同體智力)으로써 중생의 견문(見聞)에 따라 응하여 업용(業用)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른바 중생이 삼매에 의하여야 평등하게 모든 부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4.2.3 체용(體用)훈습

(e6.4.2.3.1) 진여 자체와 작용의 훈습은 평등하지만 훈습을 받는 근기에 차별이 있음을 밝혔다.

6.4.2.3.1 미상응(未相應)

(e6.4.2.3.1.1) 삼승(三乘)[성문, 연각, 보살]은 믿음과 의식의 훈습에 의지하므로 진여 삼매에 깊이 진입하지 못하여 무분별심을 얻지 못하고, 진여 자체와 상응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자재업 또한 얻지 못해서 진여의 작용과도 상응하지 못한다.

(q6.4.2.3.1.2) 첫째는 미상응이니, 범부와 이승과 초발의보살(初發意菩薩) 등은 의와 의식의 훈습으로 신력(信力)에 의하기 때문에 잘 수행을 하지만 아직 무분별심(無分別心)이 체(體)와 더불어 상응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며, 아직 자재업(自在業)의 수행이 용(用)과 더불어 상응하지 못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6.4.2.3.2 이상응(已相應)

(e6.4.2.3.2.1) 십지 이상의 보살은 이미 진여를 증득해서 무분별지에 이르렀으므로 진여 자체와 작용과 상응한다. 이는 오직 진여법의 힘에 의해 수행하기 때문이다. 보살 십지 가운데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진여 자체와 상응하고 여덟 번째 이후는 진여의 작용과 상응한다. 삼승은 분별사식에 의지해서 짐작할 뿐이기 때문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q6.4.2.3.2.2) 둘째는 이상응이니, 법신보살이 무분별심을 얻어 모든 부처의 지용(智用)과 더불어 상응하여 오직 법력에 의하여 저절로 수행하게 되어 진여를 훈습하여 무명을 멸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6.4.3 망심(妄心)훈습

(e6.4.3.1) 망심훈습이 어떻게 정훈습에 속하는가? 위에서 진여법이 있기 때문에 무명을 훈습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윤회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게 한다고 했다. 이것은 진여가 인(因)이 되는 근본적인 훈습[本熏]이다. 그리고 다음에서 망심이 생사고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인연이 있는 까닭에 진여를 훈습한다고 하였고 이것이 새로운 훈습[新熏]으로 관행(觀行)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망심훈습이란 ‘이미 진여의 훈습을 받은 망심’이다. 이 망심은 관행을 일으켜 진여를 훈습하므로 무명의 훈습을 받은 망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6.4.3.1 분별사식(分別事識)훈습

(e6.4.3.1.1) 분별사식이란 칠식(七識)을 통틀어 가리키나 주로 제6식[의식]만을 말한다. 의식은 분별작용이 강하여 모든 대상을 반연한다.

(q6.4.3.1.2) 첫째는 분별사식훈습이니, 모든 범부와 이승인(二乘人) 등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함에 의하여 힘이 닿는 대로 점차로 무상도(無上

道)에 나아가기 때문이다.

6.4.3.2 의(意)훈습

(e6.4.3.2.1) “의훈습은 달리 업식훈습이라고도 한다. 전5식을 모두 의(意)라고 이름하나 근본을 따진다면 업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업식은 가장 미세하여 모든 식의 근본이 되므로 의(意)라 하는데 아직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다.” (AMFC 286)

(q6.4.3.2.2) 둘째는 의훈습이니, 모든 보살이 발심용맹(發心勇猛)하여 속히 열반에 나아감을 말하기 때문이다.

6.5 정훈습과 염훈습의 차별

(e6.5.1) 염법은 처음은 없고 끝[소멸]이 있지만, 정법(淨法)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무명은 진여에 의존하므로 시작이 없고, 진여는 시작 없음도 없다. 그런데 진여가 무명을 훈습하여 무명을 단절시킴으로써 깨달음을 이룬다. 무명의 단절과 함께 법신이 현현하여 불가사의한 작용이 무궁하게 일어나므로 염법은 끝이 있지만 정법은 끝이 없다고 한 것이다.

(q6.5.2) 또한 염법(染法)은 무시이래로 훈습하여 단절되지 않다가 부처가 된 후에는 곧 단절함이 있으나, 정법(淨法)훈습은 곧 단절함이 없어서 미래에까지 다하는 것이니, 이 뜻이 무엇인가? 진여법이 항상 훈습하기 때문에 망심이 곧 멀하고 법신이 밝히 나타나 용(用)의 훈습을 일으키므로 단절함이 없는 것이다.

7. 지혜

7.1 사건의 대처

(q7.1.1) 사집(邪執)을 대처한다는 것은 일체의 사집이 모두 아견(我見)에 의하는 것이니, 만약 나[我]를 여의면 곧 사집이 없는 것이다. 이 아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인아견(人我見)이고, 둘째는 법아견(法我見)이다.

7.1.1 인아견(人我見)

(q7.1.1.1) 인아견이란 모든 범부에 의하여 말해지는 것으로 다섯 가지가 있다.

7.1.1.1 집공위성(執空爲性)

(e7.1.1.1.1) 허공을 법신으로 여기는 집착을 깨뜨린다. 형상을 떠난 법신의 이치를 모르는 중생에게 법신이 허공과 같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다시 허공이 여래의 성품이라고 그릇되게 집착한다. 그러나 허공 또한 허망한 것이다. 일체법이 오직 마음을 좇아 나온 것일 뿐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일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공인들 어찌 일체법을 떠나 독립되게 존재하겠는가?

(q7.1.1.1.2) 첫째는 경에서 ‘여래 법신이 필경 적막하여 허공과 같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이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곧 허공이 여래성(如來性)이라 여기는 것이니, 이를 어떻게 대처(對治)하는가? 허공상(虛空相)은 망법(妄法)인지라 체가 없어 여실하지 못한 것이니, 색에 대하기 때문에 이 불만한 상이 있는 것이어서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색법(色法)이 본래 마음이요 실로 밖의 색이 없는 것이니, 만약 밖의 색이 없다면 허공의 상도 없음을 밝힌 것이다.

(q7.1.1.1.3) 소위 일체의 경계가 오직 마음에서 망령되이 일어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만약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이는 것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가 멀하고, 오직 하나의 진심(眞心)으로서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는 것이다. 이는 여래의 광대한 성지(性智)의 구경의 뜻을 말한 것이요, 허공상과 같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7.1.1.2 집법위공(執法爲空)

(e7.1.1.2.1) 진여와 열반을 단멸공(斷滅空)으로 보는 집착을 대치한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도리가 참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중생의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 공성을 말하면 도리어 진여와 열반을 단멸공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진여법신은 무루의 공덕으로 충만해 있으므로 공하지 않다.

(q7.1.1.2.2) 두 번째는 수다라(修多羅)에서 ‘세간의 모든 법이 필경에는 체(體)가 공하며, 내지 열반·진여의 법도 필경에는 공한지라 본래부터 스스로 공하여 일체의 상(相)을 여의었다’ 고 하는 말을 듣고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곧 진여·열반의 본성이 오직 공(空)이라 여기는 것이니, 어떻게 대치하는가? 진여 법신은 자체(自體)가 공하지 아니하여 무량한 성공덕(性功德)을 구족했기 때문임을 밝힌 것이다.

7.1.1.3 집성위색(執性爲色)

(e7.1.1.3.1) 여래장의 성품이 물건이나 마음과 같다는 집착을 대치한다. 여래장의 성품에 모든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을 듣고 중생들은 여래장이 허망한 색법과 심법의 차별성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법은 평등한 진여에 의지해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이어서 진여는 차별이 없으나 생멸법의 염오에 의해 차별상이 드러난다.

(q7.1.1.3.2) 세 번째는 수다라에서 ‘여래장은 증감이 없어서 체가 일체 공덕의 법을 갖추었다’ 고 하는 말을 듣고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여래장은 색·심법의 자상(自相)과 차별이 있다고 여기니, 어떻게 대치

하는가? 오직 진여의 뜻에 의하여 말하였기 때문이며, 생멸염(生滅染)의 뜻에 의하여 나타냄을 차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7.1.1.4 집성유염(執性有染)

(e7.1.1.4.1) 망법이 진여에 의지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인연에 따르는 뜻’을 곡해하여 여래장에도 생사에 오염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래장은 본래부터 한없는 성공덕(性功德)을 갖추어 진여와 같으므로 허망한 염법은 여래장과 상응하지 못한다. 여래장에 망법이 있다면 어찌 여래장에 의해 망법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q7.1.1.4.2) 네 번째는 수다라에서 ‘모든 세간의 생사의 염법이 다 여래장에 의하여 있는지라 일체의 모든 법이 진여를 여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래장 자체에 일체 세간의 생사등의 법을 갖추었다고 여기니, 어떻게 대치하는가? 여래장은 본래부터 향하의 모래보다 많은 모든 정공덕(淨功德)이 있어서 진여의 뜻을 여의지도 않고 끊지도 아니하여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향하의 모래보다 많은 번뇌의 염법이 오직 망령되어 있는 것이요 그 자성은 본래부터 없는 것이니, 무시이래로 일찍이 여래장과 상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래장의 체(體)에 망법이 있다면 증회(證會)하여서 영원히 망법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7.1.1.5 집시종유염(執始終有染)

(e7.1.1.5.1) 여래장에 의해 생사와 열반이 있다는 말을 곡해해서 중생이 비롯되는 시점이 있고 열반도 다하면 다시 중생이 된다고 그릇되게 생각한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여래장에 어둡다. 그러나 여래장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무명의 시작도 없고 중생이 비롯되는 시점도 없다. 다만 여래장은 끝이 없으나 무명과 중생의 끝은 있다. 이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q7.1.1.5.2) 다섯 번째는 수다라에서 ‘여래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사

가 있으며, 여래장에 의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고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처음이 있다고 하고, 처음을 보기 때문에 또한 여래가 얻은 열반이 마침이 있어서 다시 중생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래장은 전제(前際)가 없기 때문에 무명의 상(相)도 시작함이 없으니 만약 삼계 밖에 다시 중생이 처음 일어남이 있다고 한다면 곧 이는 외도경(外道經)의 설이며, 또 여래장은 후제(後際)가 없으니 모든 부처가 얻은 열반이 그것과 상응하여 곧 후제가 없기 때문이다.

7.1.2 법아견(法我見)

(e7.1.2) 성문과 연각이 생사를 싫어하여 열반을 구하는 법아견을 타파한다. 석가여래가 생사가 곧 열반임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릇된 소견을 갖게 된다.

(q7.1.2) 법아견이란 이승의 둔근(鈍根)에 의하기 때문에 여래가 다만 그들을 위하여 인무아만을 설하였으며, 이 설함이 구경(究竟)이 못되기 때문에 오음생멸(五陰生滅)의 법이 있음을 보고 생사를 두려워하여 망령되어 열반을 취하는 것이니,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음법(五陰法)은 그 자성이 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멸함도 없어서 본래 열반이기 때문이다.

7.2 궁극적 지혜

(e7.2.1) 궁극적으로 언어 문자를 떠나 무념에 계합함으로써 진여를 증득할 수 있으므로 언어 분별을 떠나야함을 강조한다. 앞에서는 병에 따라 약을 쓰느라 언어와 논리가 동원되었으나 여전히 상대적 견지에 머물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병과 약을 함께 잊고 언어와 생각의 자취가 사라져 지혜의 작용마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일체법을 모두 떠난 무념의 경계는 깨달음을 증득한 이에게만 허용된다.

(q7.2.2) 다음에 망집(妄執)을 끝까지 다 여윈다는 것은 염법과 정법이 모두 서로 의지하는 것이어서 말할 만한 자상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 본래부터 색도 아니요 심(心)도 아니며, 지(智)도 아니요, 식(識)도 아니며, 유(有)도 아니요 무(無)도 아니어서 필경에 그 모양을 말할 수 없는데도 말함이 있는 것은 여래의 교묘한 방편으로 언설을 빌어 중생을 인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취지란 모두 망념을 떠나 진여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니, 일체법을 생각하면 마음을 생멸케 하여 참된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8. 수행 :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

(q8.1) 분별발취도상이란 모든 여러 부처가 증득한 도에 모든 보살이 발심, 수행하여 나아가는 뜻을 말하기 때문이다.

8.1 발심

(q8.1.1) 대개 발심(發心)을 말하면 세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이요, 둘째는 해행발심(解行發心)이요, 셋째는 증발심(證發心)이다.

8.1.1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8.1.1.1 신성취발심의 인연

(e8.1.1.1.1) 부정취중생이란 삼정취(三定趣)의 하나이다. 전진하여 열반에 이를지 퇴보하여 악취에 떨어질지 결정되지 않은 중생을 말한다. 삼정취는 1) 정정취(正定聚)로서 견혹(見惑)을 끊어 반드시 열반에 이를 중생, 2) 사정취(邪定聚)로서 오역죄(五逆罪)를 저질러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중생, 3) 부정취 등 셋이다. 신성취발심이란 수습위(修習位)에 해당한다. 여러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발심의 인(因)이고, 일만 겁을 경

과함은 수행의 시(時)이고, 그를 수행으로 이끄는 것은 발심의 연(緣)이다. 이런 안팎의 인연이 성숙하여 확고부동한 신심을 내어 정정취(正定聚)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믿음은 성불의 정인(正因)으로 영원토록 물러나지 않는다.

(e8.1.1.1.2) 다음은 부정취(不定趣)중생이 안팎의 인연이 미약해 바른 가르침으로부터 물러나는 경우를 밝혔다. 선근이 미약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바 진여가 안에서 일으키는 훈습이 약함을 말하는 것이다. 불법의 인연이 엷은데다가 미혹이 깊어서 부처를 뵈거나 사문을 공양하기는 해도 여전히 형상[相]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중생은 발심하더라도 본심이 아니어서 여러 인연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바른 믿음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q8.1.1.1.3) 신성취발심이란 어떤 사람에 의하여 어떤 행실을 닦아서 믿음이 성취되어 발심(發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른바 부정취중생(不定聚衆生)에 의하여 훈습의 힘과 선근의 힘이 있으므로 업의 과보를 믿고 십선(十善)을 일으키며,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무상보리(無上菩提)를 구하고자 하며, 여러 부처를 만나 직접 받들어 공양하고 신심(信心)을 수행한다. 이리하여 일만 겁을 지나서 신심이 성취되기 때문에 모든 부처와 보살이 가르쳐서 발심케 하니, 혹은 대비(大悲)에 의하여 스스로 발심케 하며, 혹은 정법(正法)이 없어지려 함에 의해서 호법(護法)의 인연으로 스스로 발심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심이 성취되어 발심하게 된 사람은 정정취(正定聚)에 들어가 필경 퇴진하지 아니하니, 이를 여래종(如來種) 중에 머물러 정인(正因)과 상응한다고 한다.

(q8.1.1.1.4) 만약 어떤 중생이 선근이 적어서 아득히 먼 옛날부터 번뇌가 매우 두텁다면 비록 부처를 만나 공양하게 되더라도 인천(人天)의 종자를 일으키고, 혹은 이승(二乘)의 종자를 일으킨다. 설사 대승을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근기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나아가고 어떤 때는 물러나며, 혹 여러 부처에게 공양함이 있더라도 아직 일만 겁을 지나지 아니하여 중도에 연(緣)을 만나 또한 발심함이 있다. 이른바 부처의 색상(色相)을 보고 그 마음을 일으키며, 혹은 이승인의 가르침에 의하여 마음을 일으키며,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배워 마음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발심들은 모두 결정되지 아니 한 것이니, 나쁜 인연을 만나면 혹 퇴실(退失)하여 이승지(二乘地)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8.1.1.2 신성취발심의 종류

8.1.1.2.1 직심(直心)

(e8.1.1.2.1.1) 마음이 왜곡되거나 편협하지 않아서 진여를 바로 본다. 이것이 진여삼매이다. 진여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행의 근본이다. 진여는 무루의 청정한 공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q8.1.1.2.1.2) 첫째는 직심이니 진여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요 [...]

8.1.1.2.2 심심(深心)

(e8.1.1.2.2.1) 진여 자체에 온갖 공덕이 있으므로 선행을 즐겨하되 그 자취가 없어 모든 행동이 성품에 계합하므로 마음이 깊다고 한 것이다.

(q8.1.1.2.2.2) 둘째는 심심이니 일체의 모든 선행을 이루기 좋아하기 때문이요 [...]

(q8.1.1.2.2.3) 묻기를, “위에서 법계(法界)는 하나의 상(相)이며 불체(佛體)는 둘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오직 진여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모든 선행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가?” 답하기를, “비유컨대 큰 마니보(摩尼寶)가 그 체성(體性)은 맑고 깨끗한 것이지만 거친 광석의 때를 가지고 있어 만약 사람이 마니보의 깨끗한 본성을 생각하면서도 방편으로서 갖가지로 갈고 다듬지 않으면 끝내 깨끗해질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중생의 진여의 법도 그 체성이 텅 비고 깨끗하나 한량없는 번뇌의 더러운 때가 있으니, 만약 사람이 비록 진여를 생각하지만 방편으로서 갖가지로 훈습하여 닦지 않으면 또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때가 한량이 없어 모든 법에 두루하기 때문에 모든 선행을 닦아서 대치하는 것이니, 만약 사람이 선법을 수행하면 절로 진여법에 귀순하기 때문이다.”

8.1.1.2.3 대비심(大悲心)

(e8.1.1.2.3.1)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여 보리를 이루게 하므로 남을 돕는 근본이 된다.

(q8.1.1.2.3.2) 셋째는 대비심이니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8.1.1.3 선법(善法)수행의 방편

8.1.1.3.1 행근본(行根本)방편

(e8.1.1.3.1.1) 진여를 따라 수행하므로 ‘근본진리를 수행하는 방편’ [행근본방편]이라 하였다. 일체법이 본래 무자성(無自性)이요, 인연화합[緣起]으로 인해 존재함을 보아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교화한다. 법성을 증득하면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니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q8.1.1.3.1.2) 첫째는 행근본방편이다. 모든 법은 자성이 생김이 없음을 보고 망견(妄見)을 여의어 생사에 머물지 아니하며, 모든 법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업과(業果)를 잃지 아니함을 보고 대비를 일으켜 여러 복덕을 닦아 중생을 섭화(攝化)하여 열반에 머물지 아니함을 말하니, 이는 법성의 주착(主着)함이 없음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8.1.1.3.2 능지(能止)방편

(e8.1.1.3.2.1) 이는 ‘허물을 그치게 하는 방편’으로서 아직 짓지 않은 죄악은 잘 살피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저지른 과오는 반성하여 다시 짓지 않는 것이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으면 법성에 따라 점차 허물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q8.1.1.3.2.2) 둘째는 능지방편이다. 자기의 허물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모든 악법을 그치게 하여 증장하기 않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법성의 모든 허물을 여의는 것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8.1.1.3.3 발기선근증장(發起善根增長)방편

(e8.1.1.3.3.1) 이것은 ‘착한 일을 일으켜 증장시키는 방편’이다. 삼보를 부지런히 공양하는 등 선근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삼보를 공경하면 삼보의 가피를 얻어 업장이 소멸되고 믿음이 굳건해진다. 삼보를 예배함으로써 아만을 치유하고 환희심을 내어 시기와 질투와 같은 장애를 벗어난다. 이것은 선행을 적극적으로 쌓는 방편이다.

(q8.1.1.3.3.2) 셋째는 발기선근증장방편이다. 삼보(三寶)에게 부지런히 공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부처를 찬탄하고 따라 기뻐하며 권청(勸請)하여 이와 같이 삼보를 애경(愛敬)하는 순후(淳厚)한 마음 때문에 믿음이 증장되어 무상의 도를 구하는 데 뜻을 두며, 또 불(佛)·법(法)·승(僧)의 힘으로 보호됨에 의하여 업장을 녹이고 선근이 퇴전하지 않음을 말하니, 이는 법성의 치장(癡障)을 여의는 것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8.1.1.3.4 대원평등(大願平等)방편

(e8.1.1.3.4.1)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하려는 방편’으로서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간적으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廣大心]과 시간적으로 미래세가 다하도록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長時心]이 근본이 된다.

(q8.1.1.3.4.2) 넷째는 대원평등방편이다. 미래세가 다하도록 모든 중생을 교화, 제도하여 남음이 없게 하여 모두 무여열반(無餘涅槃)을 이루도록 발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법성의 단절됨이 없음을 수순하기 때문이며, 법성이 광대하여 모든 중생에 두루하여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피차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구경에 적멸(寂滅)하기 때문이다.

8.1.1.4 신성취발심의 공덕

(e8.1.1.4.1) 십주(十住)보살은 법신을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여덟가지 모습을 나타내며 도를 성취[八相成道]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보살

이 십지(十地)보살과 다른 점은 미세한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십주 가운데 첫 번째 보살은 미혹이 남아있어 과거의 업이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신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원력(大願力)을 지녀 수명이 자유자재하므로 육도중생과는 다르다. 이 보살이 이미 범신을 보았다면 일체법이 자기의 마음임을 투철히 깨닫게 되므로 겁약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q8.1.1.4.2) 보살이 이 마음을 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범신을 보게 되며, 범신을 보기 때문에 그 원력(願力)에 따라서 여덟 가지로 나타내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니, 이른바 도솔천으로부터 나와서 모태에 들어가고 모태에 머물고 모태에서 나와서 출가하여 성도(成道)하고 범륜을 굴리며 열반에 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살을 아직 범신이라 하지 않는 것은 그가 과거 한량없는 때로부터 유루(有漏)의 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나는 바에 따라서 미세한 고통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업의 계박이 아닌 것이니, 대원(大願)에 의하여 자재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q8.1.1.4.3) 수다라 중에서 ‘혹 악취(惡趣)에 물러나 떨어짐이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은 실제로 물러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초학보살(初學菩薩)로서 아직 정위(正位)에 들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게 하여 저로 하여금 용맹케 하기 위한 것이다.

(q8.1.1.4.4) 또 이 보살이 한 번 발심한 후에는 겁약한 마음을 멀리 여의어 이승지(二乘地)에 떨어짐을 끝내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령 무량무변한 아승지겁(阿僧祇劫)에 어려운 행실을 부지런히 애써야만 열반을 얻는다는 것을 듣더라도 겁내어 좌절하지 않는 것이니, 일체법이 본래부터 스스로 열반임을 믿어 알기 때문이다.

8.1.2 해행발심(解行發心)

(e8.1.2.1) 앞의 ‘믿음을 성취한 방편[신성취방편]’은 십신(十信)을 단계를 지나 십주(十住)의 경계에 들어가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수행하는 방편’은 수행이 원만하여 십향(十向)의 경계에 들어가므로 전자보

다 더 뛰어나다고 하였다. 해행발심은 법성에 따라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다.

(q8.1.2.2) 해행발심이란 더욱 수승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이 보살은 처음 정신(正信)으로부터 제일 아승지겁이 다 차려고 할 때이므로 진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앞에 나타나 닦는 것이 상을 여의기 때문이다. 법성(法性)의 체는 간탐(慳貪)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에 수순하여 보시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을 물들어 더럽혀짐이 없어 오욕(五欲)의 허물을 여윌 줄 알기 때문에 그에 수순하여 지계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은 고(苦)가 없어 성내고 괴로워함을 여윈 줄 알기 때문에 그에 수순하여 인욕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은 신심(身心)의 상이 없어 게으름을 여윈 줄 알기 때문에 그에 수순하여 정진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은 항상 안정하여 있어 그 체에 어지러움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에 수순하여 선정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은 체가 밝아서 무명을 여윈 줄 알기 때문에 그에 수순하여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8.1.3 증발심(證發心)

8.1.3.1 증발심의 의미

(e8.1.3.1.1) ‘도를 증득하는 발심’이다. 삼승(三乘)은 법성(法性)을 따른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랑으로 헤아릴 뿐 무명이 완전히 조복되지 않아서 정법을 증득한 것이 아니다. 이제 십지(十地) 가운데 첫 번째 지위에 들면 전식과 현식의 장애가 사라져[즉 주관과 객관의 흔적이 소멸되어] 진여가 현현하는데 이것이 바른 증득이다.

(q8.1.3.1.2) 증발심이란 정심지(淨心地)로부터 보살구경지(菩薩究竟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계를 증득하는가? 소위 진여니, 전식(轉識)에 의하여 경계라고 말하지만 이 증득은 경계가 없는 것이요 오직 진여지(眞如智) 뿐이므로 법신이라 하는 것이다. 이 보살이 일념 사이에 시방의 남김없는 세계에 이르러 모든 부처에게 공양하여 법륜을 굴리기를 청하니, 그것은 오직 중생을 개도(開導)하여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문자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지(地)를 초월하여 빨리 정각을 이루는 것을 보이니 이는 집약한 중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혹은 내가 한량없는 아승지겁의 기간에 불도를 이룬다고 설하였으니 이는 게으르고 교만한 중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q8.1.3.1.3) 이러한 무수한 방편의 불가사의함을 보이지만 실로 보살은 중성의 근[種性根]이 같으며 발심이 곧 같고 증득한 것도 같아서 초과하는 법이 없으니, 모든 보살이 모두 다 세 아승지겁을 거치기 때문이다. 단지 중생 세계의 같지 않음과 보는 바와 듣는 바 근(根)·욕(欲)·성질이 다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이는 것도 차별이 있는 것이다.

8.1.3.2 증발심의 양상[相]

(e8.1.3.2.1) 십지의 보살은 비록 방편[方便心]과 참된 지혜[眞心]를 갖추었지만 제8 알라야식의 미세망념[業識]이 생멸하므로 구경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와는 구별된다.

(q8.1.3.2.2) 또 이 보살의 발심상(發心相)이란 세 가지 마음의 미세한 상이 있으니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진심(眞心)이니 분별이 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방편심(方便心)이니 자연히 두루 행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이요, 셋째는 업식심(業識心)이니 미세하게 생멸하기 때문이다.

8.1.3.3 증발심의 공덕

(e8.1.3.3.1) 십지의 보살은 공덕이 원만하여 색구경천(色究境天)에서 정각을 성취하여 부처의 경지를 증득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업식이 소멸하면 자연히 부사의업의 작용에 의해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성취한다. 색구경천은 색계십칠천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천(天, deva)으로서 여러 부처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 이곳의 연화궁에서 광대한 몸을 나타내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이것이 보신불(報身佛)이다.

(q8.1.3.3.2) 또 이 보살[十地菩薩]은 공덕이 다 이루어져서 색구경처

(色究竟處)에서 모든 세간 중 가장 높고 큰 몸을 보이니, 이는 일념 상응하는 지혜로써 무명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을 일체종지(一切種智)라 하며 자연히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어 시방에 나타내어 중생을 이익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q8.1.3.3.3) 묻기를, “허공이 무변하기 때문에 세계가 무변하며 세계가 무변하기 때문에 중생이 무변하며 중생이 무변하기 때문에 심행(心行)의 차별도 또한 무변하니, 이와 같은 경계를 한정지을 수 없어서 알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무명이 단절된다면 심상(心想)이 단절될 텐데 어떻게 잘 알기에 일체종지라 이름하는가?” 답하기를,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一心)으로서 상념을 떠나 있는 것이나, 중생이 경계를 잘못 보기 때문에 마음에 한정됨이 있으며, 상념을 잘못 일으켜서 법성(法性)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와 여래는 망견, 망상을 여의어서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곧 이는 모든 법의 본성인 것이다. 그 자체가 모든 방법을 환하게 비추어 대지(大智)의 작용이 있어 무량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의 응당 알아야 할 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의(法意)를 모두 열어 보이기 때문에 일체종지라 이름하게 된 것이다.”

(q8.1.3.3.4) 또 묻기를, “만약 모든 부처에게 자연업(自然業)이 있어서 모든 곳에 나타나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면 모든 중생이 혹은 그 부처의 몸을 보거나, 혹은 신비한 변화를 보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들어 이익되지 않음이 없을 텐데 어찌하여 세간에서 보지 못하는 이가 많은가?” 답하기를, “모든 부처와 여래의 법신이 평등하여 모든 곳에 두루하며 작의(作意)가 없기 때문에 ‘자연(自然)’ 이라 한 것이니 다만 중생심에 의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생심이란 마치 거울과 같으니, 거울에 만약 때가 있으면, 색상(色像)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중생심에도 만약 때가 있으면 법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8.2 신심의 수행

(e8.2.1) 근기가 약한 중생은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 ‘수행과 믿음’을 따로 시설한 것은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 중생들이 정

정취에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q8.2.2) 아직 정정취(正定聚)에 들어가지 못한 중생에 의거하기 때문에 신심을 수행함을 말하는 것이다. 어떠한 신심들이며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가? 대략 말하자면 신심에 네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8.2.1 사신(四信)

(e8.2.1.1) 근본에 대한 믿음은 진여가 믿음의 바탕이자 모든 행의 근원임을 믿는 것이고, 삼보[부처, 법, 승가]에 대한 믿음은 진여의 내인(內因)과 삼보의 외연(外緣)을 더함으로써 수행의 인과 연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다.

(q8.2.1.2)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이니, 소위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처에게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고 믿어서 항상 부처를 가까이하고 공양하고 공경하여 선근을 일으켜 일체지(一切智)를 구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모든 바라밀을 수행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사문이 바르게 수행하여 자리(自利)·이타(利他)할 것을 믿어서 항상 모든 보살들을 즐겨 친근히 하여 여실한 수행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8.2.2 오행(五行)

(q8.2.2.2) 수행에 오문(五門)이 있어, 이 믿음을 잘 성취하니,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시문(施門)이요, 둘째는 계문(戒門)이요, 셋째는 인문(忍門)이요, 넷째는 진문(進門)이요, 다섯째는 지관문(止觀門)이다.

8.2.2.1 보시(布施)

(e8.2.2.1.1) 보살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시에 셋이 있는데, 재물의

보시[財施], 법의 보시[法施], 두려움을 없애는 보시[無畏施] 등이다.

(q8.2.2.1.2) 어떻게 시문(施門)을 수행하는가? 만약 일체의 와서 구하여 찾는 사람을 보거든 가지고 있는 재물을 힘 닿은 대로 베풀어 줌으로써 스스로 간탐(慳貪)을 버리어 저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만약 액난(厄難)·공포·위핍(危逼)을 받는 사람을 보거든 자기의 능력에 따라 무외(無畏)를 베풀어 주며, 만약 중생이 와서 법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자기가 아는 대로 방편으로 설하되 명리(名利)나 공경을 탐내어 찾아서는 안 되고 오직 자리·이타만을 생각하여 보리에 회향하기 때문이다.

8.2.2.2 지계(持戒)

(q8.2.2.2.1) 어떻게 계문(戒門)을 수행하는가? 소위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으며, 양설(兩舌)하지 않고, 악구(惡口)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기어(綺語)하지 않으며, 탐질(貪嫉), 기사(欺詐), 첨곡(諂曲), 진에(瞋恚), 사견(邪見)을 멀리 여의는 것이다. 만약 출가한 자라면 번뇌를 꺾어 굴복시키기 위한 까닭에 응당 시끄러운 것을 멀리 여의고 항상 고요한 데에 처하여 소욕(少欲)과知足(知足)과 두타(頭陀) 등의 행을 수습하며 내지 작은 죄라도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여 여래가 만든 금계(禁戒)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다른 사람의 기협(譏嫌)을 막아 그 비난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망령되어 허물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8.2.2.3 인욕(忍辱)

(e8.2.2.3.1) 중생이 만나는 경계에는 순경(順境)과 역경(逆境)이 있는데 역경뿐만 아니라 순경에 대해서도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여덟 가지로 분류한 것이 소위 팔풍(八風)이다. 이 팔풍이 중생의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므로 오직 참음으로써 이겨내야 한다.

(q8.2.2.3.2) 어떻게 인문(忍門)을 수행하는가? 소위 응당 타인의 괴롭

힘을 참아서 마음에 보복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마땅히 이익과 손해, 비난과 명예, 칭찬과 기롱(譏弄), 괴로움과 즐거움 등의 법을 참고 견디기 때문이다.

8.2.2.4 정진(精進)

(q8.2.2.4.1) 어떻게 진문(進門)을 수행하는가? 소위 모든 선한 일에 마음이 게으르거나 주저함이 없어서 마음먹은 것이 굳세고 강하여 겁약을 멀리 여의고, 마땅히 과거의 구원(久遠)한 때로부터 헛되이 일체의 몸과 마음의 큰 고통을 받아 아무런 이익이 없음을 생각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응당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 빨리 모든 고통을 여의어야 하는 것이다.

(q8.2.2.4.2) 또한 만약 사람이 신심(信心)을 수행하였으나, 선세(先世)로부터 중죄와 악업의 장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샷된 마구니와 여러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거나 어지럽힘을 당하며, 혹은 세간의 사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끌리고 얽매이며, 혹은 병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니, 이러한 여러 많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응당 용맹히 정근(精勤)하여 아침 저녁의 육시(六時)에 모든 부처에게 예배하여 성심으로 참회하며 권청(勸請)하고 수희(隨喜)하며 보리에 회향하기를 늘 쉬지 아니하면 모든 장애를 벗어나게 되어 선근이 증장하기 때문이다.

8.2.2.5 지관(止觀)

8.2.2.5.1 지관의 의미

(e8.2.2.5.1.1) ‘지(止)가 경계상을 그치게 한다’는 것은 망심의 분별에 의해 바깥 경계를 짓다가 이제 각혜(覺慧)로서 바깥 경계의 상(相)을 깨뜨리는 것이다. 경계상이 그치면 분별할 바가 없으므로 지(止)라고 하는 것이다. ‘관(觀)이 생멸상을 분별한다’는 것은 생멸문에 의하여 법상(法相)을 관찰하기 때문에 분별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止)는 (定)에, 관(觀)은 혜(慧)에 배대되나, 실상 정과 혜는 지관에 두루 통하는 것이다.(AMFC 366)

(q8.2.2.5.1.2) 어떻게 지관문을 수행하는가? 지(止)라 하는 것은 모든 경계상을 그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 사마타관(奢摩他觀, samatha)을 수순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요, 관(觀)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생멸상(因緣生滅相)을 분별함을 말하는 것이니 비발사나관(毗鉢舍那觀, vipassana)을 수순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수순하는가? 이 두 가지 뜻으로 점점 수순하여 서로 여의지 아니하여 쌍으로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8.2.2.5.2 지(止)

8.2.2.5.2.1 지를 닦는 방법

(e8.2.2.5.2.1.1) 망념의 제거가 수행의 관건이요, 망념을 없애 무념에 이르는 것이 수행의 궁극이다. 지(止)를 닦을 때, 오직 일념(一念)으로 진여를 바르게 생각하여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망상이 일어날 때 이 일념으로 비추면 망상은 소멸된다. 그리고 소멸했다는 생각마저 버린다. 또 망상이 사라지면 진여를 생각하는 일념마저 버려야 한다. 일념은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 임시로 세운 것이니 참마음은 본래 생각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념은 본래 독자적인 성품[自性]이 없어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망상이 본래 없는데 망상을 제거하려 드는 것은 망념으로 망념을 제거하려는 것이니 도리어 망상만 치성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한 생각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수행 과정에서 일념을 세울 때 망념을 다스리는 방법은 망념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망념은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생각을 쉬면 망념도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q8.2.2.5.2.1.2) 만약 지(止)를 닦는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하되, 기식(氣息)에 의하지 않으며, 형색(形色)에 의하지 않으며, 공(空)에 의하지 않으며 지(地)·수(水)·화(火)·풍(風)에 의하지 않으며, 내지 건문(見聞)·각지(覺知)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상념을 생각 생각마다 다 없애고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없애야 한다.

(q8.2.2.5.2.1.3) 일체법이 본래 상이 없기 때문에 생각 생각이 나지 않으며 생각 생각이 멸하지 않으며, 또한 마음을 따라 밖으로 경계를 생각하지 않은 후에 마음으로 마음을 제멸(除滅)하는 것이다. 마음이 만약 홀어져 나간다면 곧 거두어 와서 정념(正念)에 머물게 해야 할 것이니, 이 정념이란 오직 마음뿐이요 바깥 경계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곧 또한 이 마음도 자상(自相)이 없어서 생각 생각마다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8.2.2.5.2.2 진여삼매

(e8.2.2.5.2.2.1) 진여삼매는 깊이 믿고 힘껏 수행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고, 믿지 않거나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얻을 수 없다. 오직 진여삼매에 의해 부처의 법신이 중생의 몸과 평등하며 법계가 차별이 없음을 볼 수 있다.

(q8.2.2.5.2.2.2) 만일 앓은 데서 일어나 가고 오고 나아가고 머무는 데에 행위하여 짓는 바가 있더라도 이 모든 때에 항상 방편을 생각하여 수순관찰하여 오래 익혀 익숙하게 되면 그 마음이 머물게 된다. 마음이 머물기 때문에 점점 맹리(猛利)하여 진여삼매에 수순하여 들어가게 되어 번뇌를 깊이 조복(調伏)하고 신심이 증장하여 속히 불퇴전(不退轉)의 경지를 이룬다. 오직 의혹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고 중죄업장(重罪業障)을 짓고 아만(我慢)과 해태(懈怠)한 사람은 제외하니,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q8.2.2.5.2.2.3) 또한 이 삼매[진여삼매]에 의하기 때문에 곧 법계가 일상(一相)인 것을 아는 것이니, 일체 모든 부처의 법신이 중생신(衆生身)과 더불어 평등하여 둘이 아님을 말하며, 이를 곧 일행삼매(一行三昧)라 이름한다. 진여가 이 삼매의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 만일 사람이 수행하면 점점 무량한 삼매를 내는 것이다.

(q8.2.2.5.2.2.4) 진여삼매란 보는 상(相)에 머물지 않고 얻은 상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내지 정(定)에서 벗어난 때에도 게을리함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번뇌가 점점 없어지게 되니, 만약 모든 범부가 이 삼매법을 익히지 아니하면 여래종성(如來種性)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간의 모든 선(禪)과 삼매를 닦으면 흔히 거기에 맞들여

야견(我見)에 의하여 삼계에 얽매어 외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니 만약 선지식의 보호하는 바를 여의면 곧 외도의 견(見)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8.2.2.5.2.3 삼매 수행의 이익

(q8.2.2.5.2.3.1) 또한 정근(精勤)하여 전념으로 이 삼매를 수학하는 이는 현세에서 마땅히 열 가지 이익을 얻을 것이니, 어떤 것이 열 가지인가? 첫째는 항상 시방의 모든 부처와 보살에게 호념(護念)함을 입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마구니와 악귀에 의하여 두려움을 받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아흔 다섯 가지 외도와 귀신에 의하여 혼란(惑亂)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깊고 미묘한 불법을 비방함에서 멀리 떠나 중죄(重罪)의 업장(業障)이 점점 엷어지는 것이요, 다섯째는 일체의 의심과 모든 나쁜 사고를 없애는 것이요, 여섯째는 여래의 경계에 대한 믿음이 증장되는 것이요, 일곱째는 근심과 후회를 멀리 여의어 생사 중에 용맹하여 겁내지 않는 것이요, 여덟째는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교만을 버려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는 것이요, 아홉째는 비록 정(定)을 얻지 못하였으나 모든 때에 모든 경계처(境界處)에 대하여 번뇌를 줄여서 세간을 즐기지 않는 것이요, 열째는 만일 삼매를 얻으면 외연(外緣)의 모든 소리에 의하여 놀라지 않게 되는 것이다.

8.2.2.5.3 관(觀)

8.2.2.5.3.1 관을 닦는 까닭

(q8.2.2.5.3.1.1) 만약 사람이 오직 지(止)만을 닦으면 곧 마음이 가라앉거나 혹은 게으름을 일으켜 여러 선을 즐기지 않고 대비를 멀리 여의게 되니, 이러므로 관(觀)을 닦는 것이다.

8.2.2.5.3.2 관을 닦는 방법

8.2.2.5.3.2.1 무상관(無常觀)

(q8.2.2.5.3.2.1.1) 관을 닦아 익히는 이는 마땅히 모든 세간의 유위(有爲)의 법이 오래 머무름이 없어 잠깐 동안에 변하여 없어지며, 모든 마음의 작용이 생각생각마다 생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苦)인 줄 알아야 하며, 과거에 생각한 모든 법이 어슴푸레하여 꿈과 같은 줄 알아야 하며, 현재 생각하는 모든 법이 번개와 같음을 알아야 하며, 미래에 생각할 모든 법이 마치 구름과 같아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세간의 모든 몸뚱이가 모두 다 깨끗하지 못하고 갖가지로 더러워서 하나도 즐겨워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8.2.2.5.3.2.2 대비관(大悲觀)

(q8.2.2.5.3.2.2.1) 이와 같이 일체의 중생이 무시이래로 모두 무명의 혼습한 바에 의하기 때문에 마음을 생멸케 하여 이미 모든 신심(身心)의 큰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곧 한량없는 핍박이 있으며, 미래에 받을 고통도 한계가 없어서 버리고 여의기가 어렵건만는 이를 깨닫지 못하니, 중생이 이처럼 매우 가련한 것임을 늘 생각해야 한다.

8.2.2.5.3.2.3 서원관(誓願觀)

(q8.2.2.5.3.2.3.1)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곧 용맹스럽게 다음과 같이 대서원(大誓願)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원컨대 내 마음으로 하여금 분별을 떠나게 함으로써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의 모든 선한 공덕을 수행케 하며, 미래가 다하도록 한량없는 방편으로 일체의 고뇌하는 중생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열반 제일의의 낙 [第一義樂]을 얻도록 바라는 것이다.

8.2.2.5.3.2.4 정진관(精進觀)

(q8.2.2.5.3.2.4.1)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때, 모든 곳에 있는 여러 선을 자기의 능력에 따라 버리지 않고 수학하여 마음에 게

올러함이 없으니, 오직 앉았을 때 지(止)에 전념하는 외에는 나머지 일체에서 다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8.2.2.5.4 지관의 겸수(兼修)

(e8.2.2.5.4.1) 여기서는 지관을 함께 닦아야 함을 역설한다. 지(止)를 닦으면, 두 가지 허물을 떠나게 되니, 하나는 범부의 인법상(人法相)을 없애고, 둘은 오음(五陰)이 실재한다고 보는 이승(二乘)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한다. 관(觀)을 닦으면 첫째, 이승의 좁은 마음을 타파하고, 둘째, 범부로 하여금 무상(無常)의 진리를 보게 하여 게으름을 다스린다. 이와 같이 지와 관은 서로 보완적이어서 함께 닦지 않으면 보리를 증득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q8.2.2.5.4.2) 가거나 머물거나 눕거나 일어나거나 어느 때든지 모두 지관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니, 소위 비록 모든 법의 자성이 나지 않음을 생각하나, 또한 곧 인연으로 화합한 선악의 업과 고락 등의 과보가 빠뜨려지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음을 생각하며, 비록 인연의 선악의 업보를 생각하나 또한 곧 본성은 얻을 수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q8.2.2.5.4.3) 만약 지(止)를 닦으면 범부가 세간에 주착(住着)함을 대치하고 이승(二乘)의 겁약한 소견을 버릴 수 있으며, 만일 관(觀)을 닦으면 이승이 대비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협렬심(狹劣心)의 허물을 대치하고, 범부가 선근을 닦지 않음을 멀리 여윈다. 이러한 뜻에 의하므로 이 지(止)·관(觀) 이문(二門)은 함께 같이 조성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만약 지·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곧 보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이다.

8.2.3 염불

(e8.2.3.1) 믿음이 깊지 못해서 안으로는 마음이 용렬하고 밖으로는 인연을 얻지 못해 두려워하며 믿음이 위축되는 중생들을 위해 신심을 보존하고 증장시키는 방편으로 염불을 권한다. 이런 중생들은 오로지 염불

에 전념하여 정토 왕생을 구하여 불보살의 가호를 구해야 한다. 아미타불을 염하여 서방정토에 왕생하면 불퇴지(不退地)에 머물게 되는 것이 염불의 공덕이다.

(q8.2.3.2) 다음에 중생이 처음 이 법을 배워서 바른 믿음을 구하고자 하나 그 마음이 겁약하여, 이 사바세계에 머무름에 스스로 항상 제불을 만나 친히 받들어 공양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가 걱정하면서 말하기를 ‘신심은 성취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니, 뜻이 퇴진하려고 하는 이는 여래가 수승한 방편이 있어 신심을 섭호(攝護)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뜻을 오로지하여 부처를 생각한 인연으로 서원에 따라 타방불토(他方佛土)에 나게 되어 항상 부처를 친히 보아서 영원히 악도(惡道)를 여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q8.2.3.3) 이는 수다라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오로지 서방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생각하여 그가 닦은 선근으로 회향하여 저 세계에 나기를 바라면 곧 왕생하게 되며 늘 부처를 친히 보기 때문에 끝내 퇴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으니, 만약 저 부처의 진여법신을 관(觀)하여 항상 부지런히 수습하면 필경에 왕생하게 되어 정정(正定)에 머물기 때문이다.

8.3 수행의 장애

(e8.3.1) 선정을 닦을 때 나쁜 습관과 그릇된 지견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마귀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들이 오직 자신의 의식의 투영임을 투철히 알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현상은 사라지게 된다.

(q8.3.2) 혹 어떤 중생이 선근의 힘이 없으면 모든 마구니와 외도(外道)와 귀신들에 의하여 어지럽게 되니, 혹은 좌중에서 어떤 형체를 나타내어 공포를 일으키게 하거나 혹은 단정한 남녀 등의 모습을 나타낼 경우, 오직 마음뿐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계가 곧 멀하여 끝내 뇌란(惱亂)되지 않을 것이다.

8.3.1 마장(魔障)

(q8.3.1.1) 혹 천상(天像)과 보살상을 나타내거나 또한 여래상을 지어서 상호(相好)가 구축하며 혹은 다라니를 설하며 혹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설하며, 혹은 평등하고 공(空)하며 무상(無相)하고 무원(無願)하며 무원(無怨)·무친(無親)하고 무인(無因)·무과(無果)하여 필경 공적(空寂)함이 참된 열반이라고 설한다.

(q8.3.1.2) 혹은 사람들에게 숙명(宿命)의 과거의 일을 알게 하고 또한 미래의 일도 알게 하고 타심지(他心智)를 얻게 하여 변재(辯才)가 막힘이 없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의 명예나 이익되는 일에 탐착하게 한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 성내고 자주 기뻐하게 하여 성품에 일정한 기준이 없게 하며, 혹은 자애가 많거나 잠이 많고 병이 많아서 그 마음이 게을러지게 하며, 혹은 갑자기 정진을 하다가 뒤에 곧 그만두어 불신하는 마음을 내어 의심이 많고 염려가 많게 하며, 혹은 본래의 수승한 행위를 버리고 다시 잡업(雜業)을 닦으며 혹은 세속의 일에 집착하여 갖가지로 끌려다니게 한다.

(q8.3.1.3) 또한 사람들에게 모든 삼매를 얻게 하여 진여삼매에 든 것과 약간 비슷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외도가 얻은 것이지 참다운 삼매가 아닌 것이다. 혹 또한 사람들에게 혹은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사흘 내지 이레를 정(定) 중에 머물게 하여 자연의 향미(香美)한 음식을 얻어 몸과 마음이 쾌적하여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목이 마르지도 않게 하여 사람들을 그것에 애착하게 한다. 혹은 사람들에게 먹는 것에 한계가 없게 하여 잠깐 많았다가 잠깐 적게 하며 안색을 변이하게 한다.

8.3.2 마장의 대처

(q8.3.2.1) 이러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이는 언제나 응당 지혜로써 관찰하여 이 마음을 사망(邪網)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마땅히 부지런히 정념(正念)하여 취착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모든 업장을 멀리 여윌 수 있을 것이다. 외도가 가지는 삼매는 모두가 견(見)·애(愛)·아만(我慢)의 마음을 여의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 그들의 삼매는 세간의 명리와 공

경에 탐착하기 때문이다.

8.4 수행의 권장

(q8.4.1) 만일 어떤 중생이 여래의 매우 깊은 경계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내어서 비방을 멀리 여의고 대승도에 들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논을 가지고 사랑(思量)·수습(修習)하면 구경에 무상도(無上道)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 법을 듣고 나서 겁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처의 종자를 이어서 반드시 모든 부처에게 수기(授記)하는 바가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q8.4.2)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중에 가득한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十善)을 행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한 번 식사하는 시간에 바로 이 법을 생각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앞의 공덕보다 우월하여 그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사람이 이 기신론을 받아 가져서 관찰하고 수행하기를 하루낮 하루밤 동안 한다면 그가 가지는 공덕이 한량없고 가이없어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니, 가령 시방의 일체의 모든 부처가 각기 무량무변한 아승지겁에 그 공덕을 찬탄 하더라도 또한 다할 수가 없다. 어째서인가? 이는 법성의 공덕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q8.4.3) 어떤 중생이 이 기신론에 대하여 횡방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가 받는 죄의 과보는 무량겁을 지나도록 큰 고뇌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다만 우러러 믿어야 할 것이요 비방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깊이 스스로를 해치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 해쳐서 일체의 삼보의 종자를 단절하기 때문이며, 일체의 여래가 다 이 법에 의하여 열반을 얻기 때문이며, 일체의 보살이 이로 인하여 수행하여 불지(佛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q8.4.4) 과거의 보살도 이미 이 법에 의하여 정신(淨信)을 이루었고, 현재의 보살도 이제 이 법에 의하여 정신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마땅히 이 법에 의하여 정신을 이루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

이 부지런히 수학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은정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2004.

이기영. 『원효사상: 세계관』. 홍법원, 1997.

감산(오진탁 옮김). 『감산의 기신론풀이』. 서광사, 1992.

Yosito S. Hakeda. *The Awakening of Faith*.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London, 1967.

Peter N. Gregory. *Tsung-mi and the Sinification of Buddhism*.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2002.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 1a 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종현
- 제 2 호 『밀린다 팡하』 / 서정형
- 제 3 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 제 4 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 제 5 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 제 6 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 제 7 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 제 8 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정원규
- 제 9 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 제 10 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 제 11 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철성
- 제 12 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 제 13 호 프레게 『산구의 기초』 / 최 훈
- 제 14 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 1a 호 『대학』 / 박성규
- 제 2 호 맹자 『맹자』 / 이해경
- 제 3 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 제 4 호 조선전기 이기론 / 허남진
- 제 5 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 제 6 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 제 7 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 8 호 플라톤 『국가』 / 김인곤
- 제 9 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 10 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 박경숙
- 제 11 호 데카르트 『성찰』 / 윤선구
- 제 12 호 로크 『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 13 호 라이프니츠 『단자론』 / 윤선구
- 제 14 호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진병운
- 제 15 호 흄 『인설론』 / 장동익
- 제 16 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 제 17 호 헤겔 『정신현상학』 / 강성화
- 제 18 호 마르크스 『자본론』 / 손철성
- 제 19 호 제임스 『실용주의』 / 정원규
- 제 20 호 니체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 제 21 호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혜
- 제 22 호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 신상규
- 제 23 호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 제 24 호 쿤 『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 제 25 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2호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E-mail: philinst@plaza.snu.ac.kr

전화: 02) 880-6223

팩스: 02) 874-0126

발행일 2005년 4월 28일

인쇄일 2005년 4월 30일

출 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ISBN 89-91280-28-5